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 석사 학위 논문

일화기록에 대한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이야기



2014년 8월

부경대학교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박 선 희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일화기록에 대한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이야기

지도교수 이 경 화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8월

부경대학교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박 선 희

박선희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4년 8월



위 원 교육학박사 황 희 숙 (인)

위 원 문학박사 권 연 희 (인)

위 원 교육학박사 이 경 화 (인)

목 차

ABSTRACT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5
II. 이론적 배경	6
1. 유아평가	6
가. 유아평가의 개념 및 목적	6
나. 유아평가의 방법	9
2. 유아평가 관련 선행연구	13
3. 일화기록	17
가. 일화기록의 개념 및 특징	17
나. 일화기록의 방법	20
4. 포커스그룹인터뷰	23
III. 연구방법	26
1. 연구자	26
2. 연구 참여자	28
가. 최교사	29
나. 김교사	29

다. 윤교사	30
라. 박교사	31
마. 강교사	31
바. 송교사	32
사. 엄교사	33
3.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34
4. 자료수집	35
5. 면담과정	36
6. 자료분석	40
IV. 연구결과	42
1. 사립유치원 일화기록의 한계	42
가. 무엇이 기록되고 있는가?	42
나.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53
다. 기록과 활용은 왜 어려운가?	60
2. 사립유치원 일화기록의 과제	71
가. 유아발달 이해 자원으로서의 기록	71
나. 일화기록의 순환적 활용	79
다. 제도적 지원을 통한 교사의 평가역량 강화와 근무환경 개선 ..	87
V. 논의 및 결론	94
참고문헌	103
부록	110

표 목 차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배경	28
<표 2> 면담 일자 및 주요 면담 내용	37



그림 목 차

[그림 1] 교육부에서 제시한 일화기록 서식	22
[그림 2] ‘문제행동의 기록’의 일화기록 예시 ①	44
[그림 3] ‘문제행동의 기록’의 일화기록 예시 ②	45
[그림 4] ‘문제행동의 기록’의 일화기록 예시 ③	45
[그림 5] 일화기록 서식의 예시 ①	63
[그림 6] 일화기록 서식의 예시 ②	64
[그림 7] 일화기록 서식의 예시 ③	64
[그림 8] 일화기록 서식의 예시 ④	64
[그림 9] 일화기록 서식의 예시 ⑤	65
[그림 10] 일화기록 서식의 예시 ⑥	65
[그림 11] 사진을 첨부한 일화기록의 예시	78

Stories of Private Kindergarten Teachers on Anecdotal Records

Seon Hee Park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s to collect focus group interview and individual interviews on the experiences of anecdotal records from 7 kindergarten teachers at private kindergartens, based on the importance of anecdotal records on childhood assessment. Through actual experiences of anecdotal record, this study is to consider what the teachers at private kindergartens are recording, how they utilize them, why recording and utilizing are difficult, and find out what the challenging tasks of such anecdotal record are.

The object of this study were teachers working in private kindergarten, and 7 teachers, who are either writing anecdotal records now or have experiences writing them, were intentionally gathered based on the length of their education career. To obtain the participating teachers' perception and thoughts on anecdotal record, focus group interviews in discussion-form and individual interviews were performed for 10 weeks, and data was collected in the forms of voice recording of conversations with participants, transcription of voice recording, researcher journal, research log written by the researcher of this study, and sample of anecdotal record.

In order to analyze the data, the entire process of focus group intervi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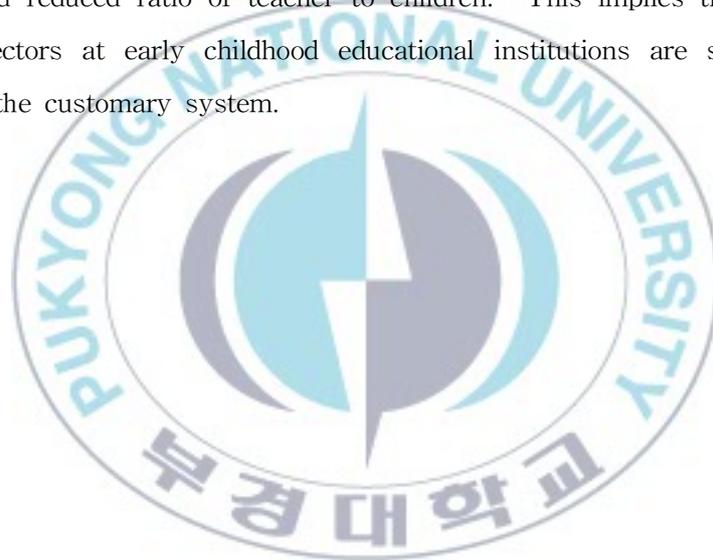
and individual interviews were recorded; and the recorded data was transcribed and categorized during qualitative analysis, through open coding and selective coding. The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 teachers' anecdotal records in terms of comprehension resource of early childhood development, rotational application, reinforcement of teachers' evaluation capability, and improvement of work environment can be suggested as follows.

First, the anecdotal records at private kindergartens should be written as comprehension resource. To achieve this, the existing anecdotal records that focus on problematic behaviors, or where the record is concentrated at certain time, or are only superficial documents for external evaluation should be introspected. Regarding this, participants insist that, for children's comprehensive development, teachers should equally observe all developmental areas, and record the growth, development, or achievements in everyday activities in natural context. Also, they suggest that the anecdotal records are regularly examined as a record of practical data. This implies planned writing of anecdotal record.

Second, anecdotal records at private kindergartens should be used rotationally. To achieve this, the reality such as not summarizing and analyzing the anecdotal record based on certain standard and time, leading to incomprehension of early childhood development, not communicating smoothly with the parents based on anecdotal record, or not properly reconstructing the curriculum should be introspected. Regarding this, participants insist that teachers should understand the children's interest and level of development, support accordingly, and communicate with the parents on the children's development and progress in details. Also, they expected to continuously monitor the learning and development of children, and creatively applying and reconstructing the curriculum according to the environment and actual state.

Third, for smooth recording and utilization of anecdotal record in private

kindergartens, the teacher's evaluation capacity should be reinforced and an institutional support for work environment improvement should take place. To achieve this, the phenomenon of not fully understanding anecdotal record, evaluating passively according to the educational institution's atmosphere, and poor working environment of private kindergartens should be introspected. Regarding this, participants requested information about the method of enforcement on anecdotal records and distribution of professional books like manual from Office of Education; and they expected decreased workload per teacher, and reduced ratio of teacher to children. This implies that the roles of the directors at early childhood educational institutions are significant in improving the customary system.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유아교육의 본질은 유아의 발달이 어느 한 측면에 치우치지 않고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전인발달을 도모하는데 있다. 이러한 유아교육의 본질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전반적 발달을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유아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평가는 어떤 대상이나 사물의 속성에 대해 가치를 판단하고 평정하는 일이다(정종진, 1999). 평가는 인간이 존재하는 곳 어디에서나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매 순간 이루어지는데,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평가도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인간행위이기도 하다(최일선, 홍용희, 2003). 또한 교육에서의 평가도 학습 내용과 별개가 아니며 그 자체가 목적이기보다는 피교육자에게 질적으로 향상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인 동시에, 학습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교육적인 결정을 위한 기초로 학습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관찰하고, 녹음하고 기술하는 과정이다. 유아의 경우, 유아의 발달정도나 유아 개개인의 능력 및 특성과 잠재력에서의 개인차 등을 평가하여 교육에 반영시킴으로써 개인 발달의 최대화를 도모하려는 데 평가의 목적이 있다(황해익, 2002).

유아평가는 국가수준 교육과정 차원에서 그리고 질 관리에 관한 국가의 정책적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가수준 유치원교육과정에서는 유아평가가 유아의 태도와 흥미와 같은 정의적인 측면과 인지적 측면

을 평가하고 유아의 일상생활과 누리과정 활동 전반에 걸쳐 포괄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관찰, 활동결과물 분석, 면담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며, 평가결과는 유아에 대한 이해와 지원, 교수학습 방법 개선, 교육과정 운영, 부모면담 및 생활기록부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2013).

교육과정의 질적인 성장을 목표로 하여 법적 근거(유아교육법 제 19조 제 1항)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유치원평가제에서도 유아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유치원평가제는 2007년 시범평가를 시작으로 2014년 현재 제 3주기 평가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유치원평가제의 평가 내용 중 공통 지표로 교육과정 평가영역의 ‘교육활동 및 평가의 실시·활용’의 평가항목에서 유아평가 실시 방법과 활용의 적절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평가요소에는 관찰, 작품분석, 면담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유아의 발달상황을 지속적으로 기록·점검하고, 교육과정 운영 및 학부모 면담에 활용할 것을 안내한다.

한편, 유아평가의 실태나 인식, 어려움 등에 대한 관심은 여러 연구를 통해 제기되고 있다. 유아평가에 대한 국내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크게 유아평가의 방법 및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들(방충남, 1999; 배인숙, 1995; 이순자, 2004; 이정환, 김지영, 1996)과 유아평가에 대한 교사의 인식 및 현황에 관한 연구(김윤경, 2001; 박미옥, 2012; 박미정, 2000; 서은주, 홍순옥, 2009; 손미경, 1999; 손희경, 2011; 유종수, 2001; 이상하, 2011; 이성희, 2003; 최미숙, 박지영, 성연정, 윤유중, 2009), 유아평가의 방향 탐색(김남희, 2010; 김영선, 2006; 김지영, 1994; 나귀옥, 김경희, 2012; 이진희, 윤은주, 2012), 대안평가에 대한 관심을 조사한 연구들(김경철, 1997; 심윤희, 2013; 안경숙, 김소향, 2001; 윤복희, 2000; 최일선, 홍용희, 2003)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들 연구들에 의하면, 대부분의 교사들은 유아평가에 대해 긍정적이고 유아의 발달상황을 이해하고 수업형태의 개선을 위해 평가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지만(김영선, 2006; 김윤경, 2001; 최미숙 등, 2009), 교사의 인식과 실태를 비교해보면 평가목적, 평가내용, 실시방법, 평가시기, 평가결과에서 실태가 인식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지연, 2007; 배인숙, 1995; 서은주, 홍순옥, 2009; 손미경, 1999; 유종수, 2001; 홍혜경, 1996). 그리고 유아평가 실행 시 어려운 점으로 과도한 업무로 인해 시간 부족(김지연, 2007; 서은주, 홍순옥, 2009; 손희경, 2011; 유종수, 2001)과 유아 대 교사의 높은 비율로 인한 평가 실시상의 어려움을 보고하고 있다(김영선, 2006; 김윤경, 2001; 손미경, 1999; 엄기자, 2000). 또한 우리나라 유아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유아평가의 방법은 대체로 유아에게 적절한 비형식적 방법인 관찰을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지연, 2007; 서은주, 홍순옥, 2009; 이성희, 사영숙, 2004; 이정환, 김지영, 1996; 임재택, 1995).

특히, 유아평가 도구 중 일화기록을 가장 잘 활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박미정, 2000; 방충남, 1999; 손희경, 2011; 이정환, 김지영, 1996), 이러한 일화기록은 개인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그 개인이 나타낸 구체적인 행동 사례나 어떤 사건에 관련된 관찰기록을 상세히 기록하는 방법으로(황해익, 2004), 유아교육현장에서 실시하는 유아평가의 방법 중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화기록은 관찰과 기록이 특정한 사건에 얽매이지 않으며, 기록할 만한 가치와 흥미가 있으면 환경이나 상황의 특별한 설정 없이 어느 곳이나 기록이 가능하고(황해익, 2010),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유아발달의 여러 측면을 자연스럽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가 유아교육기관 생활을 통하여 수집한 일화들은 유아의 발달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이은혜, 1995).

일화기록은 관찰자의 시선에서 유아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의 목소리로 기록

되는 평가도구로서 교사의 많은 전문성을 요구한다. 이는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교사상으로, 각 발달단계에 따른 유아에 대한 이해와 바람직한 유아평가의 실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연구하는 교사’에 의한 평가로서, 일화기록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하지만 일화기록 시 어려운 점으로 손리라(2011)는 일화기록이 평면적으로는 아이의 행동만을 기술하기 때문에, 많은 수의 유아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아이의 내면이나 주변상황을 같이 해석하면서 기록하는 것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또한 손희경(2011)도 일화기록 시 지속적인 관찰의 어려움을 보고하고 있다.

유아교육기관에서 일화기록이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화기록의 어려움이 보고되고 있으나, 일화기록의 실태나 개선점 등에 관해 중점적으로 탐구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또한 유아평가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설문지 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져 옴으로써 유치원 교사가 경험한 유아평가에 관한 사항을 연구자가 미리 설정한 한정된 문항 내에서 응답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로 인해 교사 개개인이 경험하는 사례의 특성을 기반으로 일화기록의 현상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다. 즉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평가로서의 일화기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에 관한 교사들의 실제 경험을 탐구하고 그 의미를 찾아 교육적 시사점을 얻을 필요성이 제기된다.

교사들의 일화기록에 관한 실제 경험을 탐구하는 데 있어 포커스그룹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와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포커스그룹인터뷰란 특정한 주제에 대한 인식이나 생각을 얻기 위한 토의방식으로 연구 참여자들 사이의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구조화된 집단 인터뷰를 말한다(임희정, 2012). 서로 잘 알지 못하면서 유사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집단으로 구성하였을 때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Padgett, 1998), 관심 있는 주제와 관련된 참여자들이 모여서 개인의 경험

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을 통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지식도 함께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하고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박귀선, 2009). 이러한 점에서 포커스그룹인터뷰는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일화기록을 하면서 경험하는 혼란, 당황, 갈등, 기쁨, 놀라움 등의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개별인터뷰와 병행해 나감으로써 교사 자신의 개인적 신념과 ‘사립유치원 교사’의 집단적 삶을 고찰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일화기록의 교육적 의미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유아평가에서 갖는 일화기록의 중요성에 근거하여, 사립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는 일곱 명의 교사들로부터 그들의 일화기록 경험을 포커스그룹인터뷰 및 개인인터뷰를 통해 수집하고자 한다. 일화기록의 실제 경험을 통해 사립유치원에서 교사들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지, 어떻게 그것을 활용하는지, 그리고 기록과 활용이 왜 어려운지를 고찰하며, 이러한 일화기록의 도전적 과제가 무엇인지 밝히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일화기록의 실재를 이해하고, 나아가 일화기록의 개선과 바람직한 실행을 위한 실천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가.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일화기록의 한계는 무엇인가?

나.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일화기록의 과제는 무엇인가?

Ⅱ. 이론적 배경

1. 유아평가

가. 개념 및 목적

평가란 한마디로 어떤 것의 가치를 판단하는 과정이며, 교육에서 가치 판단의 준거는 전통적으로 교육목표를 의미하였다(방춘남, 1999). 평가는 전통적으로 측정 및 심리검사에 관련하여 발달된 개념으로, 교육평가에 대한 고전적인 정의로서 Tyler(1949)는 “평가의 과정이란 본질적으로 교육과정 및 수업의 프로그램에 의하여 교육목표가 어느 정도 실현되었는지를 밝히는 과정”이라고 하였다(이은혜, 1995, 재인용). 이와 같이 교육 목표를 준거로 삼을 때 전통적으로 학습자의 성취에 평가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 이후 교육평가의 개념이 확대되면서 Cronbach(1963)는 “평가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과정”이라 정의하였다(손리라, 2011, 재인용). 또한 유아의 전인적인 성장발달을 위한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는 작업으로서 평가의 의미가 크다(방춘남, 1999). 그리고 의사결정의 대상을 수업개선에 관한 의사결정, 학생 개인에 관한 의사결정, 행정체제에 관한 의사결정으로 분류하였다(황해익, 임재택, 1996). 보다 본질적인 의미에서 교육평가를 교육의 목적 자체도 평가대상으로 삼는 가치지향적인 행위로 생각하여 어떤 대상의 장점이거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정의내리는 입장도 있다(채선희, 1997).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2009)에서는 평가

를 사물이나 일에 대해 가치를 판단하고 평정하는 것이라고 보며, 그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판단의 준거와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평가의 준거는 평가의 대상과 평가의 내용을 말하며, 평가의 기준은 평가방법을 말한다. 이와 같이 평가의 개념도 시대나 학자에 따라 견해의 차이가 있으며 학습자의 성취중심에서 유용한 정보를 수집하고 다시 사용하는 과정 중심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평가나 교육 평가의 개념을 유아교육에 적용시켜 본다면, 유아교육의 목적이 유아 개인의 전인적인 발달을 도와주는 것에 목적을 두기 때문에 유아들의 전인적인 성장발달을 돕기 위한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실현되었고 달성되었는지 알아보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김영선, 2006). 또한 유아의 발달정도, 특정 유아교육 프로그램과 유아와의 상호작용의 효과, 유아 개인의 능력 및 특성과 잠재력에서의 개인차 등을 평가하여 교육에 반영시킴으로써 개인 발달의 최대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황해익, 2002).

종합해보면, 유아평가란 유아의 전인적인 성장 발달을 돕기 위한 모든 교육활동들의 효율성을 알아보는 것이며, 교육활동 중에서 교육활동 전, 과정 중, 후에 나타나는 유아의 발달상황과 유아교육과정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각 유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유아교육에서의 평가의 목적에 관해 Salvia와 Yesseldyke(1991)는 평가는 목적을 지닌 정보의 수집이라고 강조하면서, 유아의 현 상황과 진행을 결정하기 위함이며 프로그램 계획과 의사결정을 위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유아를 확인하여 기록과 의사소통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증거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유아교육에서 일반적으로 유아평가를 실시하는 목적에 대해 여러 학자들이 언급한 내용을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평가는 유아의 개인적 요구와 현재 발달 수준을 이해하기 위함이다. 유아의 성장, 발달, 학습 등의 측면에 대한 조건이나 상황에 대해 유아가 현재 알고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흥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파악하며 현재의 강점, 흥미, 태도, 성향이 어떠한지에 대해 답을 얻기 위해서 평가를 실시한다(손미경, 1999). 그러므로 교사는 각 유아의 개인차를 정확히 인식하여 유아를 위해 가장 적합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유아의 생활의 질을 증진시킨다는 명백한 목적을 가져야 한다(강숙현, 최미숙, 1995; 교육부, 1995; 이정환, 박은혜, 1996; 임재택, 1995; Leavitt & Eheat, 1991; NAEYC, 1992; Seefeldt, 1990; Wiggins, 1996).

둘째, 교육과정 계획과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평가를 실시한다. 누리과정을 실시하면서 영역이나 활동에서 개별 유아의 수행과 결과를 평가하는데, 평가를 통한 유아에 대한 이해는 발달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계획·실행하는데 필수적이다. 수업과정에서 자세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록은 교육과정을 변화시킬 수 있다(이정환, 박은혜, 1996; 임재택, 1995; NAEYC, 1992). 또한 유아의 발달 정도 및 학습 준비도 수준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는 유아를 위한 누리과정을 계획하고 수정·보완하는 등 유아에 관한 의사결정의 기초가 된다(박미옥, 2012).

셋째, 학급전체 유아의 현재 상태를 이해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유아의 발달 및 학습은 유아가 놀이하고 활동하는 집단의 사회적 맥락과 특정집단 내에서의 유아의 사회적 지위 및 인기도, 친구들과 협조하고 타협하는 능력 등에 영향을 받는다(손미경, 1999). 교사는 집단의 역동적 관계에 따라 적절한 교수법의 적용을 고려해야 하며, 또한 유아 개인 간의 차이를 비교하여 아는 것은 교사가 학급을 효과적으로 지도하는데 필수적이다(교육부, 1995; 이정환, 박은혜, 1996).

넷째,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결정이나 부모와의 면담을 위해 평가를 실시한다. 전문가들은 교사들이 유아의 학습과 발달을 어떻게 잘 이끌어 주는지를 알고자 하며, 효율성을 판단할 정보를 알고자 한다. 평가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해 주게 된다(임재택, 1995). 또한 부모와의 면담을 통해 유아의 발달수준 및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유아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유아교육의 효과를 극대화로 이끌 수 있다(이상하, 2011).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2012)에 따르면, 유아평가를 위해서 교사는 유아평가를 왜 하려고 하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하고 유아 평가는 일반적으로 유아의 발달수준과 교육·보육활동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며,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실시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기능을 통해 유아의 개인적 발달을 도와주는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유아교육에서 유아평가의 목적은 유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유아의 발달과 학습 수준을 평가하여 이를 교육과정의 구성과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적합한 경험을 제공하여 유아가 전인적 성장발달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다. 또한 개별적 또는 특수한 요구를 파악하게 도와주며,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필요한 유아의 발달과정과 학습의 증거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종합할 수 있겠다.

나. 유아평가의 방법

유아평가의 절차에 따라 유아평가의 방법은 유아에 대한 자료를 얻기 위한 것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손리라, 2011). 교육과학기술부(2009)에 따르면 유아평가의 자료 수집 방법은 규준화의 여부에 따라 형식적 평가와 비형식적 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형식적 평가는 구체적이고 제한된

범위의 유아행동에 대한 평가로 창의력 검사, 준비도 검사, 신체검사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둘째, 비형식적 평가는 개인의 성장 및 진보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유아의 행동 관찰, 작업표본, 부모·유아 면담, 비디오나 사진 자료 등이 해당된다. 중요한 것은 유아를 평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며, 각 평가 도구의 특징 및 장점도 각기 다르므로 평가 시 적절한 평가 방법을 활용해야 하는데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2012)가 발표한 유아평가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하루 일과 속에서 유아가 하는 놀이와 일상 활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체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유아를 평가한다.

둘째, 유아의 작업 결과물을 통해 유아를 평가한다. 유아들이 놀이나 활동에서 그린 그림이나 글, 만든 구조물의 사진, 언어나 음률 활동의 동영상, 언급한 말 등 작업 결과물을 수집하고 기록함으로써 유아 발달의 객관적인 증거를 파악한다.

셋째, 생활 기록부나 가정환경 조사서, 부모와의 면담을 통해 유아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보이는 행동과는 다른 측면의 유아의 모습을 알려준다. 이를 통해 유아 행동의 원인을 이해할 수 있고, 유아의 발달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넷째, 특정 영역을 평가하는 표준화된 검사나 질문지 등을 사용하여 유아의 발달정도를 파악한다. 형식적인 평가보다는 관찰과 같은 비형식적인 평가가 가장 기본적이다.

유아에 대한 객관적이고 타당하며 신뢰성 있는 자료를 얻기 위해 유아교육현장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은 관찰법이다(김지연, 2007; 이성희, 사영숙, 2004; 이정환, 김지영, 1996; 임재택, 1995). 관찰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 방법 중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방법의 하나로서 유아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효과적인 교사 역할에 필수적인 방법이다(교육부,

1995). 교사는 관찰을 통해 이론과 실재를 연계시킬 수 있다. 즉 유아에 대한 지식을 실제로 교수를 통해 전환시키고 유아를 주의 깊게 보고 듣고 반성적으로 사고하는 관찰을 통해 다시 유아에 대한 지식에 반영하는 것이다. 교사가 직접 관찰을 통해 유아를 평가하고자 할 때, 교사는 곧 자료수집의 도구 역할을 한다. 그러나 관찰 시 교사의 편견이 작용하기 쉽기 때문에 교사가 도구로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갖고 수행하기가 쉽지 않고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된다.

유아교육현장에서의 유아 평가방법의 대부분이 관찰법 한 가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 방법마저 그 사용빈도가 매우 낮고 사용하는 경우에도 비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용은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유치원 현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비형식적 평가와 형식적 평가를 모두 활용하되 그들간의 중간 위치에 속하는 방법을 고안하여 사용할 수 있다(이순자, 2004). 예를 들어 자연관찰보다는 조금 더 구조화되고 형식적인 절차를 통한 관찰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아를 체계적으로 관찰하는 방법으로 일화기록, 표본기록, 시간·사건 표집, 체크리스트, 평정척도 등으로 분류되어지는데,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일화기록

일화기록은 개인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그 개인이 나타낸 구체적인 행동사례나 어떤 사건에 관련된 관찰기록을 상세히 기록하는 방법으로 유아교육 현장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황해익, 2004). 또한 사건이나 행동을 기술함에 있어서 마치 사진을 보는 것과 같이 사실적으로 묘사되는 글이라 하여 ‘글로 묘사된 사진’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이은혜, 1995). 반면 관찰자의 편견이 들어갈 수 있으며, 교사가 이 양식에 익숙하지 않을 경우 정확하게 기록하기만 해서 정작 평가의 자료로서 활용되지 못할 수도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2) 표본기록

표본기록은 지속적인 관찰기록법으로 행동의 일화를 가장 자세하고 완전하게 표현하는 관찰방법이다. 즉, 관찰자가 관찰대상이나 장면을 미리 정해 놓고 그 장면에서 일어나는 행동과 상황을 모두 집중적으로 기술한다. 따라서 표본 기록은 현장에서 관찰할 때 어떤 부분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기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황해익, 2010). 관찰 대상의 행동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므로 행동이 모든 맥락을 이해하기 쉽고 관찰자가 필요로 하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 장점이 있으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자료를 정리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이상하, 2011).

(3) 시간·사건 표집

표집법은 행동을 측정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한 범부를 사용하는 관찰 기술로, 행동을 상세히 기술하는 것보다, 행동의 표본을 ‘표본추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간·사건 표집법이 대표적이다(이상하, 2011). 먼저, 시간 표집법은 미리 선정된 관찰대상의 행동들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잠시 행동을 관찰하여 그 결과를 기록하는 것으로, 비교적 짧은 시간 사이에 행동이 얼마나 발생하는가를 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반면, 사건 표집법은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일어나는 행동의 원인과 결과를 알고자 하거나 특정행동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를 알아보하고자 할 때 유용한 관찰방법으로 시간 표집법은 시간을 정해 놓고 관찰하는 반면에 사건 표집법은 관찰하고자 하는 행동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록한다는 차이가 있다.

(4)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는 행동목록법이라고도 하며 교사나 관찰자가 단순히 어떤 기술이나 행동 혹은 발달 특성이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고 싶을 때 쓰이는 방법으로, 단순한 행동 리스트이며 행동 유무를 확인하는데 있다(박미정, 2000). 관찰하고자 하는 행동의 목록을 만들어서 해당사항에 체크하는데 행동 목록들은 이미 연구되어 나와 있는 자료를 사용하거나 교사가 직접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행동목록을 통해 관찰 대상의 행동의 형태를 쉽게 파악하고 해석하기 쉬운 장점도 있으나 목록에 나와 있지 않은 행동을 놓치기 쉽고, 행동의 출현 빈도나 질적 수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이기숙, 2001)

(5) 평정척도

평정척도는 관찰하려는 행동에 대해 어떤 질적 특성의 차이를 몇 단계로 구분하여 판단하고자 할 때 사용되며, 관찰항목과 함께 몇 단계의 척도로 구성되어진다. 그 단계는 대개 3단계에서 7단계의 척도까지 구성되며, 각 단계를 구별할 수 있는 준거가 제시된다(교육부, 1995). 평정척도는 작성하기가 비교적 용이하고 수량화하기에 편리한 점, 그리고 행동의 질적 분석까지 가능한 장점 때문에 다양한 범위의 행동연구에 많이 사용되지만 관찰 내용을 직접 현장에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결과에 따른 판단을 요구하므로 개인적 편견이나 오류의 개입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이은해, 1995)

2. 유아평가 관련 선행연구

유아평가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흐름을 보면 1980년대 이전에는 대부분이 기관운영현황에 관한 조사 중의 일부로서 언급되어질 뿐 유아평가 자체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었지만, 1990년도 후반부터 유아교육에 대한 질적 향상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로 인하여 유아교육기관에서의 평가 중 중요한 영역인 유아평가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유아평가 관련하여 발표된 선행연구의 주제들은 크게 유아평가의 인식, 유아평가의 계획과 운영, 유아평가의 내용 및 방법, 유아평가의 어려움으로 구분하여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유아평가에 대한 교사의 인식에 따른 유아평가의 실시현황을 보고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대부분의 교사들은 유아평가에 대해 긍정적이고 유아의 발달상황을 이해하고 수업형태의 개선을 위해 평가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김영선, 2006; 김윤경, 2001; 최미숙 등, 2009), 교사의 학력과 연령이 높을수록 유아평가에 더욱 긍정적이었다(박미정, 2000; 서은주, 홍순옥, 2009; 손미경, 1999; 심미영, 2005; 이상하, 2011). 하지만 교사의 인식과 실태를 비교해보면 평가목적, 평가내용, 실시방법, 평가시기, 평가결과에서 실태가 인식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지연, 2007; 배인숙, 1995; 서은주, 홍순옥, 2009; 손미경, 1999; 유종수, 2001; 홍혜경, 1996). 손미경(1999)은 대부분의 교사들이 현장에서 유아발달 평가활동이 필요하다고 여기고는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수행이 덜 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실제 수행정도가 미흡한 것으로 보아 수행정도를 스스로 낮게 평가하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서은주, 홍순옥, 2009; 이순자, 2004).

유아평가의 계획과 운영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아동의 관찰 및 작업 결과물을 교육과정 영역 당 몇 회씩 수집하고, 일 년에 몇 회 종합 및 분석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인 계획에 의거하기 보다는 상황에 따라 임의적으로 하는 경우에 이르기까지 그 실체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순자, 2004; 최미숙 등, 2009; 최일선, 홍용희 2003; Nah & Kwak, 2011). 유아평가에 대한 실시 시기와 횟수에 대한 상세한 연간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실시한다(김영선, 2006; 손미경, 1999; 이상하, 2011; 이원미, 2002)고 나타내고 있는 선행연구와 반면, 김윤경(2001)은 문서화된 계획은 없으나 별도로 실시한다고 한다. 또한 엄기자(2001)는 연구결과와 상황에 따라 수시로 실시한다고 한다.

유아평가의 내용으로는 유아의 사회성발달 영역을 가장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김영선, 2006; 김윤경, 2001; 엄기자, 2001)고 나타났으며, 평가의 맥락 으로서는 자유선택활동에서 유아의 활동을 관찰하여 평가하고, 그 다음으로 대 소집단 교육활동에 대하여 평가하거나, 식사 및 간식 시간, 화장실 가기 등의 일상생활에서의 유아의 행동을 특별한 사건이나 유아들의 어휘 및 상황적인 요소에 초점을 두고 일화기록 형식으로 기록하였다(이순자, 2004; 최일선, 홍용희, 2003). 자유선택활동시간에서 관찰이 주로 이루어지는 이유는 보조교사가 없는 우리나라 유아교육기관의 교실에서는 유아들이 스스로 활동하는 자유선택활동시간이 교사가 관찰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기 때문이라고 보고하고 있다(이순자, 2004).

유아에 대한 유아평가의 방법은 형식적인 평가보다는 비형식적 평가가 적절 하다고 나타났다(최일선, 홍용희, 2003). 비형식적인 평가 중 우리나라 유아교육 기관에서 실시하는 유아평가의 방법은 대체로 유아에게 적절한 관찰을 주 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지연, 2007; 서은주, 홍순옥; 2009, 이성희, 사영숙, 2004; 이정환, 김지영, 1996; 임재택, 1995). 김지영(1994)은 관찰을 통한 평가는 일반적으로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높은 외적 타당도를 지니 며, 유아를 가장 현실성 있게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자료를 제공해주는 효과적인 평가방법이라고 인식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방춘남(1999)은 유아들을 관 찰내용이 유아교육기관에서 보이는 유아행동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각 유아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정도를 충족시키기 위해 교사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유아평가 도구 중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일화기록을 가장 잘 활용한다고 보고하고 있다(박미정, 2000; 방춘남, 1999; 손희경, 2011; 이정환, 김지영, 1996). 하지만 일화기록 시 어려운 점으로 손리라(2011)는 일화기록이 평면적으로 아이의 행동만을 기술하기 때문에, 많은 수의 유아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아이의 내면이나 주변상황을 같이 해석하면서 기록하는 것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손희경(2011)도 일화기록 시 지속적인 관찰의 어려움을 보고하고 있다.

한편, 유아평가의 기록 면에서 보면, 기록 작업은 유아를 더 명확하게 이해하게 하고(성용구, 2002), 유아들과의 경험에 좀 더 깊은 의미를 부여하며(김희연, 정선아, 오문자, 2005), 다각적인 측면에서 관찰하고 기록된 자료들이 유아의 개인적 평가 및 교육과정의 계획, 평가를 동시에 가능하게 한다(강혜정, 1998)는 점에서 유아와 교사에게 가치를 부여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기관에서는 이야기 나누기 활동 및 유아의 자유선택 활동에 대한 평가가 기록되지 않고 구두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윤경, 2001; 나귀옥, 김경희, 2012; 이순자, 2004). 이순자(2004)는 교사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유아평가의 방법은 그 때 그때 활동상황에 따라 말로 평가하고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 구두 언어 위주의 방법이라고 하면서, 이는 교사의 머릿속에만 머물기 때문에 교육 활동을 평가와 연계시키지 못하거나 혹은 평가 자료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없어 다음의 교육과정에 반영되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리고 유아에 대해 기록을 하더라도 자료수집에 머무를 뿐, 자료 분석과 평가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되고 있다(김윤경, 2001; 방춘남, 1999; 이성희, 2003; 이순자, 2004; 이현옥, 김지영, 1999; 최미숙 등, 2009). 방춘남(1999)은 관찰내용 평가의 분석기준에 대해 거의 대부분의 교사가 정확한 분류기준에 따라 분석 평가하기 보다는 영역별로 내용을 정리하거나 참고자료로 보관만 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즉 현장에서 비형식적인 유아평가가 여전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기준을 설정할 때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유아에 대한 평가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아평가 실행 시 어려운 점을 보고하고 있는 선행연구에서는 과도한 업무로 인한 시간이 부족함을 호소하고 있었다(김지연, 2007; 서은주, 홍순옥, 2009; 손희경, 2011; 유종수, 2001). 서은주와 홍순옥(2009)은 유아들을 교육하면서 병행해야 하는 다른 업무들을 처리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따르며 과도한 업무로 인한 시간부족으로 유아발달평가를 실시하는 일이 현장에서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였다. 반면 유아 대 교사의 높은 비율로 인한 평가 실시상의 어려움을 보고한 연구들이 있다(김영선, 2006; 김윤경, 2001; 손미경, 1999, 2011; 엄기자, 2000).

3. 일화기록(Anecdotal record)

가. 일화기록의 개념 및 특징

유아를 평가할 때에는 여러 내용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에 기초하여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늘날에는 비형식적인 평가의 일환인 관찰에 근거한 평가가 주목받고 있다(이정환, 김지영, 1996; 임재택, 1995). 하루일과에서 유아가 참여하는 놀이의 종류나 수준, 친구관계, 활동 몰입 정도, 일상생활 수행정도 등 관찰 가능한 여러 행동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문장으로 기술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2012).

관찰에 근거한 평가도구에는 관찰에 일화기록, 평정척도, 사건·시간 표집법, 체크리스트 등이 있다. 그 중 유아교육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관찰의 한 형태로 일화기록을 보고하고 있다(박미정, 2000; 방충남, 1999; 손희경, 2011; 이정환, 김지영, 1996). 일화기록을 정의한 여러 학자들을 살펴보면, Randall(1936)은 일화기록을 ‘글자로 묘사된 사진’이라고 함으로써 일화기록의 사실성을 강조하였고, Beaty(1986)은 일화기록은 특정행동이나 상호작용이 발생한 후에 기록되는 자세한 설명이 포함된 이야기라고 하였다(이윤옥, 2009, 재인용). 즉, 일화기록이란 개인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그 개인이 나타낸 구체적인 행동사례나 어떠한 사건에 관련된 관찰을 상세히 기록하는 방법이다.

일화기록은 직접 관찰의 형태로서는 다양하게 정용할 수 있는 방법이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Goodwin & Driscoll, 1980).

첫째, 일화기록은 직접적인 관찰의 결과물이다.

둘째, 일화기록은 즉각적이고 정확하며 구체적인 사건의 기술이다.

셋째, 일화기록은 행동에 대한 정황을 담고 있다.

넷째, 사건에 대한 해석은 사건과 분리하여 기록한다.

다섯째, 일화기록은 아이들의 전형적인 행동과 특별한 행동에 모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화기록은 다양한 상황에서 유아에 대한 자연적 행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므로 개인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성격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교사들은 유아의 사회·정서적 특성이나 한 집단 내의 인간관계를 연구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유아들의 문제행동을 파악하거나 개별화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일화기록의 결과는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사례 연구를 할 때에도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일화기록은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유아발달의 여러 측면을 자연스럽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가 유아교육기관 생활을 통하여 수집한 일화들은 유아의 발달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이은해, 1995).

어떤 일화기록은 주제가 있을 수 있다. 즉, 관찰자가 특정한 영역의 발달에 관심이 있어서 그 영역에 관련된 일화만을 관찰하여 기록하는 경우이다(김지은, 김진숙, 2006). 또한 어떤 일화기록은 기록할 만한 가치와 흥미가 있으면 환경이나 상황의 특별한 설정 없이 어느 곳이나 일화기록을 할 수 있다(황해익, 2010). 이는 사전준비나 별도의 계획 없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관찰 기록방법에 비하여 실시하기가 편리함을 나타내고 있다.

일화기록은 모든 영역에 개별 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자연적이고, 상세하며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해준다. 이러한 기록들은 유아의 사고방식과 개념화에 관하여, 그리고 유아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보며, 그들 주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과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학기 초에 시작해서 1년간 계속적으로 수집할 때 다른 기록들과 비교될 수 있으며, 유아의 독특한 발달 패턴, 변화, 흥미, 능력, 필요 등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사고능력의 변화나 문제 영역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교사는 유아의 발달을 돕는 적절한 환경을 구성하게 하고, 교수활동을 계획하는데 기초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일화기록은 관찰자의 관찰 및 기록능력에 따라 유아 행동 및 발달에 대한 해석과 판단이 좌우되기 때문에, 관찰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관찰자가 원하는 행동을 표집하여 기록하므로 관찰자의 편견이 작용할 수도 있다. Van Manen(2000)은 일화를 수집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일화가 일어나는 그 자체 내에서의 요점을 날카롭게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일화기록을 위해서 관찰자는 각 유아들의 연령별 발달 특성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유아교육기관에서 발생하는 유아들의 일상생활과 연관된 중요한 일들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시간이 지난 후 기록하는 경우, 관찰자의 편견이 들어가거나 그때의 상황을 잊어버

릴 수 있으며, 주변 상황을 충분히 기록하지 않기에 시간 간격과 행동 단위가 작은 경우에는 연속성의 결여, 자연성의 결여, 상황적 설명의 결여로 인해 그 자료의 가치가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관찰에 대한 지식과 관찰능력 증진을 위한 교사의 지속적인 노력과 훈련이 필수적이다(이혜경, 1996).

일화기록은 기록-추론-평가의 3가지 과정을 거친다. 첫째는 관찰내용을 기록하는 과정이고, 둘째는 추론하는 과정이며, 셋째는 평가의 과정이다. 이때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관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시도한다. 구조화되지 않은 관찰이라도 하루 중 어느 시간, 어떤 장면에서 유아를 관찰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 관찰내용을 기록할 때에는 자세히, 그리고 객관적으로 기록해야 하며, 기록과 추론, 평가의 과정을 거쳐 유아 관찰 자료를 수집·활용할 수 있다. 이때 추론 및 해석은 관찰 기록에서 얻어지는 2차적인 자료로서 반드시 객관적이고 충분한 관찰기록에 근거해야 한다(김지영, 1994).

나. 일화기록의 방법

일화기록은 신문기사를 쓰듯이 사실적으로 무슨 상황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났으며, 유아가 그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하고 행동했는지를 기록하는 것이다(이정환, 박은혜, 1995). 또한 행동을 기록할 때에는 관찰 행동을 크게 세 가지 수준으로 나눈다. 즉, 행동의 전반적인 측면이나 주요행동, 주요 행동의 하위행동, 행동의 진행상황으로 나누어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황해익, 손영숙, 정혜영, 2008).

일화기록은 사건이 생긴 후 즉시 기록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메모지에 육하원칙에 따라 핵심적인 단어나 문장만을 적어놓고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완전하게 기록한다면 기록을 되살리는데 도움이 된다(황해익, 2010). 일화기록이 유아에 관한 유용한 평가 자료로 수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

를 고려해야 한다(김지은, 김진숙, 2006; 황해익, 2010).

첫째, 관찰한 행동이나 사건에 대해 사실적 또는 객관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따라서 주관적인 의미가 포함된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일화가 발생한 후 될 수 있는 한 빨리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또한 사실적인 기록을 하기 위해 카세트를 이용하거나 유아의 작업결과와 사진 등의 참고자료를 같이 사용할 수도 있다.

둘째, 관찰날짜, 시간, 장소, 장면 등 상황적인 자료가 기록에 포함된다. 중심 인물의 행동과 말을 기록하고, 그 상황에서 있었던 다른 유아나 교사의 말과 행동도 기록한다. 특히 피관찰자가 사용한 말은 그대로 인용부호(“ ”)속에 삽입하여 기록해 둔다.

셋째, 일화기록의 가치는 사실적으로 기록해 두는 데 있으므로 객관적인 사실과 이에 관한 관찰자의 해석이나 처리방안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록한다. 구체적이고 특수한 사건을 기록하고, 일반적이거나 평가적인 서술은 피한다. 즉, 실제로 발생한 사실의 기록과 관찰자의 의견이나 해석에 관한 내용을 구별지어 기록하여 이후에 혼동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관찰자의 해석은 한 번의 일화기록으로는 어려우므로 적어도 일정 기간 수집한 몇 번의 일화에 기초해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일화에 대한 해석은 따로 양식을 만들어 사용하며 발달상의 중요 포인트를 적어 놓는다.

넷째, 여러 사건이나 여러 명의 유아가 참여한 사건을 기록하려고 할 때 일화기록을 하는 방법은 대체로 한 번에 한 가지 사건만을 취급하도록 한다. 그리고 어떤 사건에 한 명 이상의 유아가 참여하고 주요 인물인 경우에는 관련 유아의 기록에도 같은 일화를 그대로 포함시키면 유용하다.

일화기록의 관찰양식은 특별한 형식이 없이 구조화되지 않은 특징을 갖고 있으므로 교사가 기록하기 좋은 형식으로 만들어 사용하면 되는데, 교육부(2000)에서 제시한 일화기록의 양식은 그림 1과 같다.

일 시	
대 상	
장 소	
기 록	
교육 과정 영 역	
분 석	

자료출처 : 교육부(2000). 유치원 교육 활동 지도자료-총론.p.188.

[그림 1] 교육부에서 제시한 일화기록 서식

Brandt(1972)는 일화기록을 평가할 때 포함해야 할 항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이정환, 박은혜, 1996, 재인용).

첫째, 관찰시간, 관찰 장면, 진행 중인 활동상황 등의 자료가 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대상아동의 주된 행동이 묘사되어 있어야 한다.

셋째, 아동이 말한 것이 그대로 서술되어 있어야 한다.

넷째, 아동이 한 말과 행동뿐 아니라 그 아동과 상호작용하는 다른 아동이나 교사의 말과 행동도 그대로 기록되어야 한다.

다섯째, 기록은 객관적이고 사실적이어야 하며 관찰자의 추론과 해석은 모두 배제되어야 한다.

4. 포커스그룹인터뷰 (Focus Group Interview)

질적 연구 방법은 의미를 발견함으로써 연구 현상에 대한 통찰력을 얻게 되는 방법으로 설명과 이해를 중요시 하고, 예견 및 통제가 아닌 개인적 상황과 의미를 포함하는 생생한 체험을 이해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원윤희, 2011).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개인이 지니고 있는 주관적인 관점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기도 한다(Van Manen, 2000). 질적 연구에서 포커스그룹인터뷰는 특정한 주제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 사이의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구조화된 집단 인터뷰를 말한다. 이 인터뷰는 동일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함께 불러 모아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라고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다(Morgan, 1997).

포커스그룹인터뷰의 목적은 선택된 주제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서로의 관심사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인데, 참가자들의 생각이나 의견에 합일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주제에 대하여 사람들의 심도 있는 생각이나 의견을 이끌어내어 그 경향이 어떤지 알아보려는 것이다(임희정, 2012).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이용한 연구는 우선 연구목적에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연구 목적에 대한 명료화는 계획 세우기, 필요한 그룹의 수, 질문, 얻어진 정보가 적합한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수단, 다음의 포커스그룹인터뷰가 행해져야 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등 전반적인 연구의 기반을 마련한다(이혜원, 2009).

포커스그룹인터뷰는 참가자들의 연구주제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얻기 위한 것이므로 가장 생산적인 토의를 할 수 있는 참가자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참가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의도적 표집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이혜원, 2009). 의도적 표집 방법이란 수행하려고 하는 질적 연구의 목적을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가 풍부한 연구 참여자, 장소, 사례 등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과정을 말한다(Bogdan & Biklen, 2010). 의도적 표집을 통한 참가자들이 서로가 근본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식할 때 토의가 보다 활성화되어 심층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룹의 동질성이 확보된다면 보다 역동적이고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포커스그룹인터뷰 참가자들은 전형적으로 4명 이상부터 12명 이하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 구성원이 12명 이상이 되는 큰 그룹에서는 대화 중에 참가자들에게 골고루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반면, 4명 이하로 구성되는 작은 그룹은 참가자들 간에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는 기회는 많지만 참가자의 수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빈약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단점이 있다(이혜원, 2009; 임희정, 2012).

포커스그룹인터뷰의 진행자는 인터뷰를 실시하기 전에 진행방법과 질문 등을 미리 계획한다. 토론시간의 배정, 그룹 사이즈와 디자인 방법, 그리고 그룹의 수 등을 미리 계획한다. 질문에 대한 질 좋은 반응을 얻기 위한 환경과 태도, 그리고 질문을 생성하는 방법과 질문의 범위,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질문을 이끌어 가는 방법 등을 계획하여 실시한다. 이 그룹의 진행은 미리 작성한 개방형의 질문에 따라 훈련된 중재자가 진행을 하는데 이 때 참가자의 동의를 얻어 비디오나 오디오테이프를 토론내용을 기록하고 토론이 끝나면 수집한 자료를 전사하여 얻고자 하는 중요한 개념과 정보를 분석할 수 있다(이성숙, 김애화, 2008).

이 연구방법은 아직은 불명확한 주제를 다루고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알아보자 할 때 도움이 된다(임희정, 2012). 주제와 관련 있는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개인의 경험을 통해 습득한 전문적인 지식을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을 통하여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지식도 함께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하고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박귀선, 2009). 또한 진행자는 참가자들의 토론을 관찰하면서 응답자들의 표정과 태도 등도 관찰할 수 있어서 토론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참가자들의 의도를 쉽게 짐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참가자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수준 높은 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적은 인원수로 토론을 진행하기 때문에 통계적인 대표성을 보증할 수 없고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윤숙희, 2013).



Ⅲ.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일화기록에 대한 의미 있는 경험을 나누기 위해 포커스그룹인터뷰와 개인인터뷰를 통한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일곱 명의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1. 연구자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일화기록 경험에 대한 연구는 연구자 ‘나’의 삶의 체험과 관심에서 출발하였고,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탐구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는 나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그 의미를 또한 해석하였다.

나는 2007년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학교의 부속유치원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 유치원 교사가 되었다는 설레임과 첫 사회의 발걸음이라는 의미가 더해져서 교사로서 가장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였던 것 같다. 그리고 부속유치원이라는 특성에 맞게 대학교에서 나오는 참관생, 교수님들과 함께 수업에 대해 고민하였으며, 유아의 발달과 특성에 적합한 경험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였다.

한 차례의 이직 후 6년차가 되던 해 교사로서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부장교사로서 일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수업 면에서 인정을 받았다. 그리고 학부모님과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교사

로서 많은 보람과 희열을 느낄 수 있었다. 유아들의 하루일과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행동, 의미 있는 행동들을 간단히 메모하여 하원 시나 일과 후 전화 상담을 통해 부모와 유아의 발달과 성장에 대해 함께 나누었다. 하지만 매일 관찰 및 기록이 되는 유아가 있는 반면에 일화기록이 잘 되지 않는 유아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다.

그러던 때에 자율장학을 하게 되었는데 교육과정 점점 계획이 함께 찾아왔다. 하지만 자율장학을 준비하던 시기와 지도점검, 또한 개인적인 결혼준비가 모두 맞물리게 되면서 모든 것을 동시에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자율장학을 핑계로 그동안 미뤄왔던 서류 ‘교육계획안, 일화기록, 체크리스트, 안전계획안, 특색활동계안……’ 이주일도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안에 이 모든 서류를 다 해야 했었던 것이다.

시간에 쫓기면서 감사의 대상이 되는 서류들에 대해 ‘대충대충’을 경험하면서 일화기록 또한 컴퓨터를 이용해 덮어쓰기를 하며 제출하게 된다. 바빠 쫓긴 시간 안에 꼼수를 부린 일화기록 앞에서 ‘난 지금 바쁘잖아. 난 해야 할 것이 많아..’ 하며 스스로를 변호하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하는 회의감이 들기도 했다. 교실의 많은 유아들, 과도한 업무, 점검을 위한 서류는 서류로서의 일화기록이 양은 많아졌지만, 현재 하고 있는 일화기록은 유아나 부모에게 피드백이 가지 않는 종이조각에 지나지 않음을 느꼈다. 이러한 경험은 일화기록이 교사와 유아에게 주는 교육실천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계기가 되었다.

사립유치원 현장에서 일화기록을 경험하였던 이야기를 되짚어 보고 싶은 욕구와 점점 중요시 되는 유아평가에 대한 관심으로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된 배경과 동기가 되었으며, 본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수집된 자료들은 그들의 관점에서 연구 결과들로 정리될 것이다.

2. 연구 참여자

질적 연구에서 참여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적절성과 충분함의 두 가지 원리가 요구된다. 적절성은 연구에 대한 가장 좋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참여자를 선택하는 것이다. 또한 충분함은 현상에 대한 충분하고 풍부한 설명을 하기 위해 자료가 포화 상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수집하는 것이다(정금란, 2009).

본 연구에 참여자는 사립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이며, 유아평가 중 일화기록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한 경험의 이야기를 통해 일화기록의 현실과 도전을 그들의 관점에서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 참여자는 일화기록을 해본 경험에 따라 그들의 관점에 차이가 있을 것을 고려하여, 교사의 교육경력 연차에 따라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립유치원 교사들을 선정하였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는 본 연구의 취지를 이해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는데 적극적인 사립유치원 교사 일곱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배경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배경

이름	성별	나이	경력	총 학력	소지 자격증	직급	담당학급		소속유치원	
							연령	원아수	학급수	원아수
최교사	여	29	8	대학원재	유1정	연령주임	만3세	23	5	120
김교사	여	29	6	대학원재	유1정	연령주임	만5세	32	5	138
윤교사	여	30	5	전문대졸	유1정	연령주임	만4세	34	8	216
박교사	여	28	5	전문대졸	유1정	교사	만4세	15	3	65
강교사	여	26	4	전문대졸	유2정	교사	만5세	27	4	120
송교사	여	24	2	전문대졸	유2정	교사	만3세	22	6	118
엄교사	여	24	1	대학교졸	유2정	교사	만4세	21	5	120

가. 최교사¹⁾

최교사(29세)는 전문대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사 취득 후 현재 석사과정 중에 있는 교육경력 8년의 1급 정교사로 부산의 사립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다. 현재 원아 23명의 만 3세반 담임을 맡고 있는데, 학기 초에는 만 3세 유아의 기본생활습관 및 생활지도로 인해 신체적·심리적 소진을 경험하였으나 2학기가 접어들어 요즘은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다.

현재 유치원에서 하고 있는 유아평가는 일화기록, 생활기록부가 있으며 작년까지 유아작품평가, 체크리스트를 시행하였으나 학기말 교육과정평가에서 유아작품평가, 체크리스트가 의무적으로만 시행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와서 올해부터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교사회의를 통해 일화기록의 틀을 유치원의 여건과 환경을 고려서 수정·보완하여 사용하고 있다. 유아가 의미 있는 행동이 보일 때 일화기록지를 꺼내서 바로 기록 하고 있었으며 요약을 적고 있으나 피드백이 되지 않는 현실에서의 어려움을 토로 하였다. 처음 연구과정을 설명했을 때 본인이 현재 논문 진행 중이라 연구자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이유만으로 흔쾌히 응해 주었으며, 이러한 논문주제가 2학기가 되면서 미뤄왔던 일화기록을 다시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논문에 참여하는 과정이 유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나. 김교사

김교사(29세)는 전문대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방송통신대학을 통한 학사 취득 후 현재 석사과정 중에 있는 교육경력 6년의 1급 정교사로 부산의

1) 본 연구에서 언급되는 교사와 유아의 이름은 모두 가명을 사용하거나 삭제하였음을 밝혀 둔다.

사립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현재 원아 32명의 만 5세반 담임을 맡고 있는데, 학급의 많은 인원수로 인하여 과중되는 업무, 전체 일 등으로 인해 신체적 소진을 겪고 있다.

유아평가와 관련된 서류들을 교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의 특성상 일화기록을 잘 하게 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유아의 의미 있는 행동이 발견 될 시에는 사진을 찍어서 바로 전화 상담이나 학부모상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처음 연구과정을 설명하였을 때 일화기록을 해야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잘 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에 대해서 공개하기를 부담스러워 했으나 비슷한 입장의 동료교사들이 함께 경험해보는 과정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연구과정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 윤교사

윤교사(30세)는 전문대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교육경력 5년의 1급 정교사로 부산의 사립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현재 원아 34명의 만 4세반을 맡고 있으며, 올해부터 연령주임을 함께 하고 있다.

현재 유치원에서 하고 있는 유아평가는 일화기록, 체크리스트(작품분석, 기본생활습관, 인성), 생활기록부를 실시하고 있다. 일화기록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늘 다른 서류들 보다 밀려나는 일화기록을 향해 ‘일화기록이 1순위가 아니다...’라고 표현한다. 유치원 평가에 맞추어 늘어나는 유아평가들로 인하여 과도한 서류상의 평가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일화기록을 ‘유아 당 한 달에 한번’ 관찰하라는 유치원의 방침에 맞게 하고 있으나 그것이 때로는 자신을 수동적인 교사로 만든다고 한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서 유아교육과를 지망하고 유치원교사가 되었지만 최근 자신의 교직 생활이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말하며, 본 연구에 참여하고자

하면서 교사로서의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라. 박교사

박교사(28세)는 전문대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교육경력 5년의 1급 정교사로 부산의 사립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현재 원아 15명의 만 4세반을 맡고 있으며, 이직한지 1년이 조금 넘었다. 처음 유치원에 왔을 때 이전 유치원과는 다른 유아평가와 틀에 대해서 혼란스러워 했었고, 유아평가에 대한 원내연수가 없어서 이해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현재 유치원에서 하고 있는 유아평가는 일화기록, 아동발달상황부(활동영역별), 1학기말 평가도, 학습준비도 평가, 체크리스트, 생활기록부, 작품과 일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교사 대 유아의 비율이 낮은 대신 한 유아에 대하여 많은 유아평가를 하고 있었으며 주로 가정과 연계되어서 피드백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박교사는 많은 유아평가가 서로 중복된 내용을 평가함을 이야기하며, 많은 유아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일화기록은 유아가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행동이 일어날 때 마다 간단한 메모 후 일화기록지에 옮겨 적고 있었으나 이러한 과정이 때로는 일화기록이 미뤄지는 이유라고 한다. 처음 연구과정을 제안하였을 때 현재 일화기록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면서 소홀해 지고 있음을 우려하였으나, 본 연구과정으로 인해서 일화기록에 대한 높은 이해와 교사로서의 성장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

마. 강교사

강교사(27세)는 전문대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교육경력 4년의 2급 정교사

로 부산의 사립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현재 원아 27명의 만 5세반을 맡고 있으며 4년째 같은 유치원에서 근무 중이다.

현재 유치원에서 하고 있는 유아평가는 일화기록, 체크리스트, 소견서, 생활기록부를 실시하고 있다. 유치원에서 유아평가 서류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었으며 그로 인하여 일화기록이 미뤄지지 않는 않았지만 평가의 의미보다는 서류를 시간 내에 내야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하게 느껴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일화기록에 의무적으로 남겨지는 유아의 기록과 교사가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기억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었으며, 일화기록이 중요하지만 다소 많은 양을 적어야 하는 일화기록의 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직 없이 한 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교사는 본인의 연차가 유치원에서 새로운 것을 제안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이야기 하면서, 본 연구과정을 통해 일화기록에 대해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배워서 유치원에서 실제로 적용해보기를 기대하고 있다.

바. 송교사

송교사(24세)는 전문대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교육경력 2년의 2급 정교사로 부산의 사립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현재 원아 22명의 만 3세반을 맡고 있다. 학기 초에는 만 3세 유아들의 기본생활습관과 유치원 생활 적응으로 인하여 교사 대 유아의 높은 비율을 실감하고 있다.

현재 유치원에서 하고 있는 유아평가는 일화기록, 아동발달상황부, 자라는 모습, 체크리스트, 생활기록부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5월에 유치원 교육과정 점검이 나왔을 때 이러한 유아평가를 한꺼번에 실시하였던 경험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서류상의 평가, 점검이라는 생각으로 인해 유아평가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다. 기록으로 남기는 것 보다는 머릿속의

유아에 대한 기억이나 이미지가 더 도움이 된다고 말하며, 유아의 의미 있는 행동이나 특성이 나타날 경우 하원 시 부모에게 전달하거나 전화상담이 이루어지고 기록으로는 따로 남기지 않는다고 한다. 본 연구자의 연구과정에 대해 이야기 했을 때, 비교적 적은 경험(연차, 일화기록)으로 인한 불안감으로 인해 선뜻 응하지 않았지만, 학교 때 이후로 일화기록에 대한 연수나 배움의 기회가 없었던 것을 이야기 하며, 이번 기회에 일화기록에 대해 다시 배우고 다른 교사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사. 업교사

업교사(24세)은 4년제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교육경력 1년의 2급 정교사로 부산의 사립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작년에는 방과후과정교사로 근무하다가 올해는 첫 담임을 맡으면서 21명의 만 4세반을 맡고 있다. 첫 담임에 대한 설레임과 기대감은 유아의 의미 있는 행동을 관찰하여 간단하게 기록하는 습관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일과 후에는 기록한 노트를 보고 오늘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업교사는 최교사와 같은 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최교사와 같이 일화기록, 생활기록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화기록이 유아의 특성과 성향을 알게 해 주는 고마운 기록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무엇이든 열심히 하는 성격과 새로운 도전을 즐겁게 받아들이는 성격은 같은 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는 최교사가 연구과정 제안했을 때 본 연구에 참여하고자 하는 결정이 어렵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교사로서의 또 다른 배움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3.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연구자는 연구현장을 제공해주고 그러한 연구결과를 생산하는 데 기여한 연구 참여자의 복지를 위하여 연구의 시작에서 끝날 때까지 윤리적 의식을 가지고 작업을 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하여 현장작업자는 연구 참여자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방법에서부터 연구보고서의 내용이 연구 참여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오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까지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김영천, 2004).

이와 같이 본 연구자는 참여자들과의 첫 만남에서 연구의 목적과 연구의 전 과정을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고 연구 참여 동의서(<부록> 참조)를 작성 받았다. 그리고 연구 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자료 수집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언급하였으며, 언제든지 연구 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연구에서 탈퇴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와 관련된 자료는 연구외의 목적에서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특히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기관명 교사 이름, 대화에서 거론된 사람 등은 모두 가명으로 처리하였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삶의 역사와 테두리 안에서 타인을 기술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자 '나'의 경험과 관심에서 출발함과 동시에 연구 참여자의 경험이 왜곡되고 편파적으로 제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해체적 반성의 과정을 통해 연구자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해석과 표현의 작업에 객관적인 태도를 취하고자 노력하였다.

4.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2013년 11월 16일부터 2014년 1월 18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참여자와의 대화한 녹음자료, 녹음자료 전사본, 연구자 저널, 본 연구자가 작성한 연구일지, 일화기록 표본들의 형태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일화기록 경험에 대한 인식이나 생각을 얻기 위해 토의방식인 포커스그룹인터뷰를 하였다. 포커스그룹인터뷰는 근무를 하지 않는 주말이나 참여자들이 퇴근 후에 한 커피숍의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연구자는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다과를 준비하여 참여자가 편안하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포커스그룹인터뷰는 5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정형화된 질문 형식은 없지만 인터뷰를 균형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 목록을 미리 작성하여 인터뷰를 진행 하였다.

연구자는 인터뷰를 실시하기 전에 그날의 토의 주제에 대한 참고자료와 이전 인터뷰에 대한 요약분을 제공하여 참여자들이 인터뷰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토의 도중에 의도하지 않게 다른 영역에 대한 의견이 나오면 주제에 벗어나지 않도록 유도했다. 토의가 끝나면 참여자에게 추가할 내용이나 빠진 점은 없는지 확인 하고 다음 토의의 주제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고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인터뷰는 참여자에게서 범주의 속성과 차원을 발달시키는데 더 이상의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지 않으면서 포화의 신호인 지루함, 중복, 반복이 나타나는 시점까지 진행하였다.

개인인터뷰는 포커스그룹인터뷰를 모두 마무리 한 후에 진행되었다. 참여자들이 포커스그룹인터뷰를 통해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나 인터뷰 내용 중에 궁금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연구자가 미리 메모하여 개인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또한 개인적 사정 및 유치원 행사 관계로 불참한 교사들에 대해

서도 개인인터뷰를 통해 내용을 추가적으로 질문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Connelly와 Clandinin(1990)은 연구일지란 사건에 대한 능동적인 재구성 이자 연구자 개인의 현장에 대한 지식의 표현이라고 하였다. 면담을 실시 한 후에는 면담 내용을 회상하면서 연구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심리적인 분위기, 의문이나 추가 질문사항들을 연구일지로 작성하였다. 이렇게 작성 된 연구일지는 면담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방향감을 갖고 다음 면담 의 주제를 정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시간이 흐른 후에 재 방문해 보면서 ‘거리두기’의 관점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포커스그룹인터뷰와 개인인터뷰 내용은 MP3 녹음기를 통해 모두 녹음 하였고, 전사한 내용은 좌우 여백 30, 위아래 여백 15, 줄 간격 160인 A4 용지에 글자크기 10 point로 전사해서 약 157매 분량이였다. 전사한 자료를 반복해서 주의 깊게 읽으며, 내용을 분석하여 유목화하고, 맥락적인 흐름을 파악하여 정리하였다.

5. 면담과정

면담과정은 5회의 포커스그룹인터뷰와 7회의 개인인터뷰를 거쳐 이루어졌 다. 연구자는 참가자들이 면담장소에 입실하기 30분전에 미리 도착하여 자 리를 원형으로 배치하고, 다과와 녹음기를 준비하였다. 연구자는 토론의 사 회자로서 진행을 하였으며, 참가자들에게 토의에서 산출된 정보는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쓰일 것임을 설명하고, 녹음에 대한 양해를 구한 뒤 면담을 시작하였다. 토론주제를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평균 1시간 10분 정도 소요되었다. 각 주제별 토의가 끝나면 연구자는 산출된 아이디

어들을 정리하고 추가할 사항이나 빠진 점이 없는지 참가자들에게 확인하였다. 인터뷰를 마친 후에는 토론에 참여해 준 참가자들에게 미리 준비한 선물을 나누어 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자료 수집을 위한 참여자와의 면담 일정과 주요 면담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면담 일자 및 주요 면담 내용

차수	면담 유형	날짜 /시간	장소	참석자	면담내용
1 회	FGI	2013. 11.16. (20:00 ~ 22:00)	T 커피숍	최교사 김교사 윤교사 박교사 강교사 송교사 엄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주제 및 절차에 대한 설명 및 참여 의사 확인·동의 - 연구에 참여하게 된 소감 및 연구 참여자의 자기소개 - 일화기록에 대한 자유로운 이야기
2 회	FGI	2013. 12.09. (20:00 ~ 21:10)	T 커피숍	최교사 김교사 윤교사 박교사 강교사 송교사 엄교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아평가에 대한 교사들의 생각 및 일화기록 작성방법 <참고자료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유아평가방법 - 일화기록에 유아평가에 미치는 영향 - 연차에 따른 일화기록 작성법 - 일화기록의 작성주체 - 일화기록이 이루어지는 시기 - 작성된 일화기록을 보관하는 방법 - 관찰을 통해 기록되는 장면들
3 회	FGI	2013. 12.15. (12:00 ~ 13:30)	T 커피숍	최교사 김교사 윤교사 박교사 송교사 엄교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일화기록 작성 시 어려운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화기록 작성 시 어려운 점 <p>* 유치원의 과도한 업무, 유치원업무에서 일화기록의 중요도, 유아관찰기술의 부족, 시간 부족, 관찰 후 요약정리의 어려움, 지속적 관찰의 어려움, 교사 대 유아의 높은 비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화기록의 필요성

4 회	FGI	2013. 12.20. (20:00 ~ 21:30)	T 커피 숍	김교사 윤교사 박교사 강교사 송교사 엄교사	3. 일화기록의 실제 - 일화기록의 활용 <참고자료 활용> - 일화기록하면 떠오르는 것 - 유치원평가로서의 일화기록 - 일화기록의 문서화작업 - 일화기록을 통한 유아의 발달수준과 행동 특성 이해정도 - 일화기록을 통한 가정과의 연계 - 일화기록 평가를 통한 교육과정계획 및 수정에 반영정도
5 회	FGI	2013. 12.27. (20:00 ~ 20:50)	T 커피 숍	김교사 윤교사 박교사 강교사 송교사 엄교사	4. 일화기록이 나아가야 할 방향 - 교사, 유아에게 일화기록의 의미 - 일화기록이 유아와 교사에게 교육실천적인 의미를 높일 수 있는 방법 - 일화기록에 대한 제도적 정책에 대한 생각 - 현장에서 일화기록의 작성 경험에 있어서 더 이야기 하고 싶은 점이나 인터뷰를 통한 소감 나누기
6 회	개인	2014. 01.10. (19:30 ~ 20:11)	T 커피 숍	최교사	- 연차에 따른 일화기록의 노하우 - 일화기록을 해서 좋은 점 - 유치원 분위기에 따른 업무 향상도 - 일화기록이 활성화되기 위한 방법 - 일화기록에 대한 제도적 지원 - 포커스그룹인터뷰를 해 본 소감
7 회	개인	2014. 01.11. (13:00 ~ 13:22)	P 대학 도서관	김교사	- 일화기록과 관찰의 차이 - 부모의 요구에 따른 유아관찰과 일화기록 - 전화상담부와 일화기록에 기록된 유아행동 - 일화기록이 활성화되기 위한 방법 - 포커스그룹인터뷰를 해 본 소감

8 회	개인	2014. 01.13 (19:30 ~ 20:11)	P 커피 숍	송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문서로서의 일화기록 - 왜곡된 일화기록으로 인한 불안감 - 일화기록을 해서 좋은 점 - 일화기록이 활성화되기 위한 방법 - 일화기록을 적을 때 필요한 기술 - 포커스그룹인터뷰를 해 본 소감
9 회	개인	2014. 01.14. (19:40 ~ 20:05)	T 커피 숍	엄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화기록에 대한 생각(또는 마음가짐) - 유치원내의 일화기록 시스템에 대한 생각 - 사립유치원에서 유치원교사의 업무 - 일화기록이 활성화되기 위한 방법 - 포커스그룹인터뷰를 해 본 소감
10 회	개인	2014. 01.15. (21:10 ~ 21:36)	T 커피 숍	박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직 시 새로운 양식에 대한 적응기간 - 일화기록이 사후기록이 되었을 때의 문제점 - 유아평가에서 일화기록이 미치는 영향 - 전화면담일지와 일화기록문서의 차이 - 일화기록을 기술할 때 어려운 점 - 일화기록을 통한 유아평가 방법 - 포커스그룹인터뷰를 해 본 소감
11 회	개인	2014. 01.16. (20:00 ~ 20:25)	A 커피 숍	강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화기록이 사후기록이 되었을 때의 문제점 - 유치원업무 중 일화기록이 갖는 중요도 - 일화기록에 대한 유아교육기관-교사-교육청과의 생각차이 - 연차에 따른 일화기록의 방법 변화 - 포커스그룹인터뷰를 해 본 소감
12 회	개인	2014. 01.18. (13:10 ~ 13:48)	연구 자집	윤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화기록을 해서 좋은 점 - 일화기록을 기술하는 데 어려운 점 - 유아평가 중 일화기록이 갖는 중요도 - 레지오에밀레아의 다큐멘터리와 통합교육의 일화기록의 다른 점 - 사립유치원 교사의 바쁜 일과 - 포커스그룹인터뷰를 해 본 소감

6.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수집한 자료들의 단순화와 한계 설정을 최소화하고 현상의 복잡성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파악하려는 입장으로 발견을 중시하며(김영천, 이용숙, 1998), 일련의 질서, 체계 그리고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Marshall & Rossman, 1989)의 관점에서 질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포커스그룹인터뷰와 개인인터뷰 과정은 모두 녹음하였고, 녹음된 자료는 전사(transcript)하였다. 오디오로 들리는 모든 소리를 문자로 기록하였으며 대화 중 참여자의 태도와 표정, 반응을 지문으로 표시하여 상세히 기록하였다. 기록된 자료를 통해 매번 이루어지는 분석과 해석은 모임의 이야기 주제, 질문거리, 모임시간, 장소 등 다음 모임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동안 선행연구와 이론서를 반복적으로 읽으며 의미 있는 해석을 하기 위한 연구자로서 지평을 넓히는 노력을 함께 하였으며(김혜선, 2005), 이것은 매회 이루어진 낱말의 이야기 속에서 전체적인 특징 및 흐름을 파악하여 의미를 부여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자료들은 개방형코딩(open coding)과 선택코딩(selective coding)을 통하여 다시 분류하였다.

개방형코딩은 질적 분석 방법 중의 하나인 주제별 약호화와 분류방법이다. 개방형 코딩으로 수집된 자료를 되풀이해서 읽으면서 반복되는 주제와 주요 사례를 추출하여 주제 주제별로 그에 해당하는 내용 및 사례들을 정리하고 소주제 내용 요약 및 해석을 기본으로 주제 코딩을 하였다. 이렇게 코딩된 자료를 다시 해체하여 검토 비교하고 개념화시켜 범주화 하였으며, 전체적인 틀에서 드러난 주제들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유목을 뽑아내어 통합하거나 세분화 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된 주제들은 제외하는 선택 코딩을 하였다.

많은 양의 자료에서 유사한 주제들을 뽑아내기란 간단한 쉬운 과정이 아니었다. 연구자 자신이 분석의 틀이 되어서(김영천, 2004) 해석을 해야 하므로 계속되는 자신의 판단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전사 자료와 관련문헌들을 계속해서 읽고, 생각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순환 반복하였으며. 질적 분석 과정에 있어서 연구자는 수집된 자료에 몰입하여 사고하는 과정, 한발 물러서서 재해석하는 과정을 반복 순환하면서 분석과 해석의 진정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IV. 연구결과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일화기록 시 개인적 신념, 유아교육기관의 요구, 유아교육제도에 따라 현실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야기 하였다. 이를 통해 일화기록이 갖는 중요성뿐만 아니라 유아교육 질적 수준 개선과 전문적 평가자의 요구가 더해지며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많은 역할과 노력이 요구하고 있었다. 일곱 명의 사립유치원 교사는 유치원 현장에서 일화기록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이야기하였고, 이러한 이야기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일화기록의 실재를 이해하면서 일화기록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 있었다.

1. 사립유치원 일화기록의 한계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일화기록을 어떻게 기록하며, 기록된 일화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록과 활용이 왜 어려운지에 관한 교사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가. 무엇이 기록되고 있는가?

모든 교육활동은 교사의 면밀한 계획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평가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포커스그룹인터뷰에 참여한 교사들은 사립유치원에서 평가에 관한 계획이 거의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아

의 문제행동을 중심으로 일화기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공간적으로 제한된 상황 하에 일화기록이 행해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이는 형식적이고 실천과는 거리가 먼 대부분 계획을 위한 계획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문제행동의 기록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일화기록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반 아이들 중 행동이 눈에 잘 띄는, 소위 문제행동을 하는 아이들로부터 시작되었다. 유아의 문제행동을 중심으로 일화기록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한 송교사의 최고사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유아의 뭔가 특별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략) 저는 지금도 제가 하고 있는 일화기록을 한번 썩 살펴보면 대부분은 아이들이 싸우거나 울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싸웠을 때! 그런데 그것도 아이러니 한 것이... 소위 못됐게 한 아이의 일화기록은 남기지만... 당한 애 것은 그냥 비어 있고... 그래서 일화기록에는 조금 더 문제행동 위주로 많이 남겨지는 것 같아요...

(3회차 포커스그룹인터뷰 중에서, 송교사, 2013년 12월 15일)

음... 튀는 행동을 하지 않거나, 말썽을 부리지 않거나, 아님 너무 조용하거나... 하는 아이들은 눈에 잘 들어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말썽을 부리려면 확실히 부리고(웃으며) 뭐 친구관계가 좋으려면 확실히 좋고... 하면 눈에 속 들어오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 썸 하는 아이들은 보면... 일화기록도 많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최교사, 개인인터뷰, 2014년 1월 10일)

오늘 인터뷰에서는 연차의 높고 낮음이 주로 언급되었다. 연차의 높고

낮음에 따라 일화기록을 잘 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의 의미 있는 행동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초임 교사같은 경우 ‘오늘 우리반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래서 일화기록 할 것이 없어요..’라는 생각이 자주 든다고 하였다. 이때 ‘아! 우리는 유아의 부정적인 행동만 찾으려 하고 있었구나!’ 하고 머릿속에 번뜩였다.

(연구자 저널 3회차, 2013년 12월 15일)

나귀옥과 김경희(2012)는 관찰의 경우, 특이하거나 문제시되는 행동을 보이는 유아를 중심으로 비체계적으로 관찰하여, 그 기록횟수가 일정치 않고, 어떤 아동은 자주 관찰·기록되는 반면, 눈에 띄지 않는 아동은 상대적으로 잘 관찰·기록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송교사는 싸움이라는 문제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주로 일화기록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최교사는 눈에 잘 띄는 행동을 하는 유아의 일화기록이 대부분이라고 말하며, 중간쯤 하는 유아들은 일화기록이 없음을 토로하고 있었다. 이러한 참여교사들의 이야기는 다음의 그들이 작성한 일화기록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관찰일자	2013. 10. 8. 화	영역	7/6시간	관찰시간	12:20-1:00
관찰내용	도시락에 밥과 반찬을 받아간다. 자리에 앉더니 ○○ 이와 △△ 이와 이야기한다. 숟가락등용머리만채 등분저도 이야기를 한다. 교사가 "부지런히 밥 먹고 있니?" 라고 묻자 그래서야 숟가락을 꺼내어 밥을 먹기 시작한다. 한숟가락 퍼먹더니 또 친구들과 이야기 한다.				
평가 지도계획	밥먹는 습관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				

[그림 2] ‘문제행동의 기록’의 일화기록 예시 ①

일 화 기 록			
관찰아동	○○○	관찰일	4/9
장 면	지우선택화활동	관찰장소	●●● 외
기 록	<p>놀이를 하는데 ○○ 이가 "선생님 ◇◇ 가 저랑 안놀아주면" 그런 이야기 하며 대 ◇◇ 가 있는 곳으로 갑.</p>		

[그림 3] '문제행동의 기록'의 일화기록 예시 ②

반 명	▲▲▲	원아명	○○○
관찰일자	2013년 5월 16일(수)	관찰자	박교사
관찰내용	<p>○○ 타 ▲▲ 가 마도영역에서 그곳 활동을 하고 있다. ▲▲ 가 교사에게 가서 "선생님, ○○ 가 새끼라는 말 써요." 라고 한다. 교사가 ○○ 이를 향해 "○○, 새끼가 뭐냐?" 라고 물어 묻자 "있잖아 하지 못한다" 라고 대답하며 "○○, 새끼라는 말을 써?" 라고 하자 영아가 "아니오사기" 라고 대답한다.</p>		
교육과정 영역	<p>의사소통 - 말하기 - 바른 교양과 생활 습관</p>		
분석	<p>집에서 영아가 활동할 때 사용하는 말을 듣고 친구에게 사용하는 ○○ 가 내뱉었던 것 같고 놀래워 우는 모습을 보였다. 같이 이야기 하니 곧장 알아듣는 모습을 보였다.</p>		

[그림 4] '문제행동의 기록'의 일화기록 예시 ③

참여교사들이 작성한 일화기록을 고찰하면, 그 기록 대상이 되는 유아는 소위 문제시되는 행동을 하는 유아로 특이하거나 평소와는 달라진 행동, 즉 부정적인 언어 습관, 친구관계, 식습관이 기록되고 있었다. 그리고 조용하고 모범적인 행동을 하는 유아는 거의 일화기록이 되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기록이 나타나는 현실에는 교사들의 고정관념에서 비롯되었음을 다음

의 인터뷰에서 알 수 있었다.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나의 고정관념인 것 같아요... ○○가
오늘은 친구한테 '너랑 놀기 싫어...'라고 했다... 라는 모습이 관찰하고
일화기록을 남기잖아요... 근데 그 아이의 일화기록을 앞에 다 뒤져보면
그 아이는 계속 그런 면만 적혀 있는 거예요... 밥을 안 먹는다... 밥 먹
는 시간에 계속 딴 짓을 한다... 이런 식의 일화기록들이 문제행동을 기
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무의식의 고정관념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
각이 들어요...

(3회차 포커스그룹인터뷰중에서, 최교사, 2013년 12월 15일)

이전에도 말한 것처럼 아이들 행동이 그날, 그날 버라이어티하게 바뀌진
않잖아요... 다 비슷비슷하게 하루를 보내는데... 저번에 쓴 것이랑 이
번에 쓴 것이랑 제가 쓴 것을 보아도, 딱 사건을 찾으려고 한 흔적이 눈
에 보이는 거예요... 아이의 장점을 찾아서 발견하기 보다는... 애가 '특
별하게 될 한 것을 기록해야 한다'하는 것이 강박관념처럼 된 것 머릿속
에 있는 것 같아요...

(3회차 포커스그룹인터뷰중에서, 송교사, 2013년 12월 15일)

(전략) '평가'하고 떠올리면 주로 '바뀌도록 하겠다' 하고 인식이 되어 있
어서 그런지... 일화기록을 적는 것이 유아의 일상적인 기록이 아니라
'문제상황을 고쳐야겠다' 라는 인식이 교사들에게 대략 한 50%넘게 차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회차 포커스그룹인터뷰 중에서, 윤교사, 2013년 11월 16일)

위의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참여교사들은 일화기록을 함에 있어서
뭔가 평소와는 다른 특별한 것, 부정적 행동을 찾아야 한다는 무의식적 고
정관념에서 출발하였다. 여기서 교사의 일화기록 동기 측면에서 보면 문제
행동이 나타났을 때 어떤 행동을 해결해 줘야 한다는 생각 즉, 그 행동을
지도할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 일화기록이 이루어지고 있고, 더 나은 발

달을 목적으로 유아를 관찰하고 기록하지는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참여교사들이 일화기록을 함에 있어서 유아의 문제행동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고 있다.

(2) 제한적 시간과 공간에서의 기록

사립유치원에서의 일화기록은 주로 자유선택활동, 점심시간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교실 내의 활동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기록되고 있음을 다음 교사의 이야기로부터 알 수 있었다.

실습생이나 연차가 낮은 선생님들한테 물어봐도 대개 보면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주로 관찰되는 것 같아요... 내가 적은 일화기록을 내가 봐도 그렇구요... 아니면 밥... (다함께 웃는다) 조금 더 다양한 활동을 적고 싶은데 막상 내가 수업을 할 때에는 일화기록을 적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 같아요... 수업하기에 더 급급한...

(1회차 포커스그룹인터뷰 중에서, 윤교사, 2013년 11월 16일)

그리고 자유선택활동시간에 주로 관찰하고 기록하다 보니... 적다보면 적을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으니깐, 그냥 다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썼던 것 같은데 하면서 앞의 내용을 보면 비슷하고.. 밥먹는 것이 눈에 띄는 아이는 점심시간 때만 나오고...

(1회차 포커스그룹인터뷰 중에서, 박교사, 2013년 11월 16일)

제일 많이 관찰하는 건... 자선시간에 그냥 노는 거 관찰하고.. 점심 먹는 시간...또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이 전부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인거예요... 실제로 요즘은 바깥놀이도 1시간 이상씩 하고 있고, 우리 유치원은 숲체험도 하면서 실외활동이 많이 이어지는데... 막상 교사가 밖에 있을 때에는 아이들 안전하게 지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일화기록을 하는 것

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4회차 포커스그룹인터뷰 중에서, 최교사, 2013년 12월 20일)

윤교사, 박교사, 최교사의 이야기에서 읽을 수 있듯이, 일화기록은 주로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유아교육기관에서의 관찰과 평가가 주로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이루어진다고 보고한 연구들(나귀옥, 김경희, 2012; 이순자, 2004; 최일선, 홍용희, 2003)과 맥락을 같이 한다. 최교사는 바깥놀이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작 일화기록은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서 주로 기록되고 있다고 한다. 교사들이 일화기록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제한적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윤교사와 김교사의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윤교사 : 대집단이나 단위활동시간은 내가 이끌어나가야 하니깐…

김교사 : 저도 단위활동시간에 일화기록을 해보고는 싶었는데 그게 또…

흐름도 끊기고 하다 보니, 아무래도 자선시간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4회차 포커스그룹인터뷰 중에서, 2013년 12월 20일)

(전략) 한번씩은 동영상 한번 찍어볼까…하고 생각만(웃는다). 해볼까 했는데 그게 막상 또 안돼… 또 대집단자리에는 솔직히 교사는 한명인데 녹음해서 그걸 또 보고… 그렇게 까지는 안하게 되니깐… 그에 반해 자선이나 점심 때, 이럴 때에는 관찰이 되니깐… 또 개별 활동 시간에는 내가 중간에 있으면서 아이들이 하는 것을 관찰하고 기록할 수 있으니까… 점심시간에도 빨리 먹은 아이들은 내가 관찰할 수 있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많이 되는 것 같아요…

(4회차 포커스그룹인터뷰 중에서, 김교사, 2013년 12월 20일)

이순자(2004)는 보조교사가 없는 우리나라 교육 기관의 교실에서는 유아들이 스스로 활동하는 자유선택활동 시간이 교사가 관찰하기 가장 좋은 시

간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김교사는 자유선택활동시간이나 점심시간과 같은 개별 활동 시간은 교사가 유아를 바라볼 수 있는 관찰의 시간이 되고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일화기록의 시간과 공간이 제한적이라고 말한다. 한때는 동영상이나 녹음을 해볼까 했지만 한 교실에서 혼자 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선뜻 실행에 옮길 수는 없다고 한다. 그리고 윤교사와 김교사의 이야기처럼 자유선택활동시간에 주로 일화기록이 이루어지는 이유를 대집단이나 단위활동시간은 담임교사가 수업을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위의 이야기를 통해 참여교사들은 사립유치원 교육현장에서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날 하루일과 중의 어느 활동을 중점으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아들의 모든 발달영역에 관한 평가 자료와 정보를 고루 수집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3) 형식적 문서로서의 기록

참여교사들은 일화기록을 떠올리며 ‘급하게’ 했던 경험을 회고하곤 하였다. 지도점검이나 유치원 평가 시에 문서화 되어 있어야 할 서류로서 ‘급하게’ 했던 경험을 윤교사, 송교사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었고 이는 형식적 서류로서 일화기록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있다.

(전략) 또 일화기록은 평가를 받거나 교육청에서 점검이 오면 꼭 감사의 대상이 되니깐...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자발적인 것 보다는 좀 더 강제적인... 그런 것이 좀 더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2회차 포커스그룹인터뷰 중에서, 윤교사, 2013년 12월 09일)

평가나 점검을 하게 되면... 굉장히 민감해지죠... 그때는 진짜... (중략)

일화기록도 평소에는 하지도 않으면서...(다함께 웃는다) 한꺼번에 미뤄서 싹 하는 것 같아요... 다른 그래요?

(3회차 포커스그룹인터뷰 중에서, 송교사, 2013년 12월 15일)

또한 일화기록을 기술 할 때 ‘과연 내가 잘 하고 있는 것인지... 다르게 적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하는 한 인터뷰이의 말에 모두가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학교 다닐 때 수업시간을 제외하면 현장에 와서는 그 누구도 일화기록의 기술방법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 선생님은 단 한번, 유치원 실습 나갔을 때 담임선생님이 일화기록을 적는 방법을 책을 복사해주면서 처음부터 알려주셨다... 라고 했다. 우리가 교육청 평가나 감사, 또는 유치원 자체적으로 검사를 할 때 일화기록의 칸이 채워졌는지 비워져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기술방법에 대해서 언급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후략)

(연구자 저널 3회차, 2013년 12월 15일)

김남희(2010)는 관찰을 한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아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라기 보다 외부평가(예, 유치원 평가, 장학지도 등)를 위한, 평가 준비를 위한 관찰인 경우가 더 많다고 보고하고 있다. 참여교사들 또한 모든 유아에 대한 판단이 형식적으로 기록되거나 문서화된 증거에 의거해야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화기록이 외부평가의 검사대상이 되기 때문에 증거확보를 위하여 기록하고, 자료를 모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증거확보를 위한 기록은 한꺼번에 거것으로 기록하는 경우까지 나타났다.

우리는 일화기록 횟수를 한 달에 한번이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 비워져 있으면 다음 달에 그 아이를 두 번 한다거나... 날짜를 바꿔서 기록해요. 왜냐면... 만약9월, 10월이 비워져 있다면... 그럼 11월달에 그 아이 것을 2개를 써서 모자란 부분을 채워 넣는 거죠...

(3회차 포커스그룹인터뷰 중에서, 윤교사, 2013년 12월 15일)

송교사 : 평가나 감사가 와서 정말 급해지면... 정말 밀리거나 그러면 아이의 특성을 생각해 봤다가 약간 바꿔서 쓰기도 하고...

연구자 : 아...성향이 비슷한 아이들은 한 가지 일화를 가지고 이름만 바꾼다는 말씀이신가요?

송교사 : 네... 그러니깐 한 가지 일을 가지고 두 명의 아이가 비슷한 행동을 했다... 이런식으로... 이런 말... 해도 되나?

(송교사의 개인인터뷰, 2014년 1월 13일)

최교사 : 그런데 컴퓨터로 한 유치원도 있거든요... 전에 컴퓨터로 한 유치원에도 있어봤는데 어떠냐면...그것을 계속 복사를 해요... 진짜로 하는게 아니라 애 이름만 바꾸고 또 옆 반 선생님이랑 바꾸고... 그것을 계속 다시 쓰는 거예요. 평소에는 안하고 있다가 일이 딱 닥치면 일을 하고... 짹~다 자기가 들고 있던 일화기록을 모두 섞어서 다른 사람이랑 공유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러면 편하죠. 선생님들은... 근데 진짜 아니죠...

김교사 : 아! 다른 원도 그래요... 같은 5세면... '야 좀 보내라' 해서 이름만 바꿔서 하고...

(2회차 포커스그룹인터뷰 중에서, 2013년 12월 09일)

윤교사는 한 달에 한번 기록으로 정해져 있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유치원의 틀에 맞추어 기록하려고 하고 있으나 시행되지 않을 경우 다른 날에 기록한 것을 날짜만 바꾸어서 기록한다고 이야기하고, 송교사는 평가나 감사에서 검사를 받기 위한 일화기록은 서류를 작성할 때 비슷한 특성을 가진 유아들의 기록을 위해 비슷한 일화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최교사는 유치원에서 컴퓨터로 일화기록을 작성했었던 이야기를 하며, 현 유치원 현장에서는 컴퓨터 기기의 편리함을 이용하여 유아의 이름만 바꾸는 소위 '붙여넣기'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처럼 일화기록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유아 교육평가에서는 활동이 곧 평가가 되는 과정중심 평가를 강조하고 있으나 현실은 보여주기 위한 결과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참여교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진짜 했는지 안했는지 이런 것을 위주로 보니까... 칸을 보면서... 종이를 넘기면서 비워있으면 많이 안했네...하고 꼭 차있으면 많이 했네...하니까...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3회차 포커스그룹인터뷰 중에서, 최교사, 2013년 12월 15일)

윤교사 : 진짜 평가가 왜 일화기록의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니까...
김교사 : 딱 자료 넘기면서 '되게 열심히 하셨네요..'이러잖아요!
윤교사 : 우리 원감선생님이 하는 말이 '내용 안 보니까 비워놓지 마라'고... 검사하다가 비워져 있으면...그 부분을 가지고 뭐라 한다면서...
김교사 :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도 뭐... 적는 방법이라든지...그런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겠어요!
윤교사 : 그렇죠... 어쨌면 그 평가 방법이, 내용보다는...
김교사 : 서류가 잘 되어 있냐...
윤교사 : 서류가 많냐... 작으냐...
김교사 : 많으면 '우와. 많이 준비하셨네요...'하면서 이야기가 되어지니까...

(3회차 포커스그룹인터뷰 중에서, 2013년 12월 15일)

왜냐하면 일화기록이 중요한 것은 알지만... 유치원에서도 검사를 안하고... 어찌다가 검사를 하면 내용적인 부분들을 터치를 안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써버리지... 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일안을 내면 내용을 한번은 훑어보시는... 일화기록 같은 경우에는 파일에 넣어놓고 채워져 있으면 아무 말도 안하시니까...

(박교사의 개인인터뷰, 2014년 1월 18일)

위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유치원 평가 위원들은 참여교사의 눈에는 그저 일화기록을 했는지, 안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양적인 결과를 중요시 하는 것처럼 비춰진다. 참여교사들은 평가의 과정이 정작 평가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안내나 지침 혹은 확인 및 요구가 없는 즉,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이처럼 참여교사들에게 일화기록은 문서화되어 있어야 할 증거로서의 기록, 보여주기 위한 양적인 기록의 이미지로 자리 잡고 있었다.

나.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참여교사들은 앞서 밝혔던 일화기록의 자료 수집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평가가 이루어질 시 관찰을 통한 기억에 의존하고 있다. 수집된 일화기록이라 할지라도 일정한 기준과 시기에 따라 요약하고 분석하지 않음으로써 유아 발달을 이해하거나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지 못하고,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곧 일화기록이 유아, 부모, 교육과정과 단절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 유아발달 지원의 단절

참여교사들은 일화기록이 추론과 평가가 이루어지는 재탐색을 하지 않음으로써, 유아발달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못하며, 이는 곧 추후 총체적인 평가의 자료로서 기능하지 못함을 나타내고 있다.

(전략) 만약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이가 있는데 내가 그 아이한테 사실

집중력 저하같은 모습을 보이는 아이들에게는 계속 그런 행동을 일화기록에 적어도 내가 그에 적절한 피드백을 안해주니깐... 그냥 생각만 하고 지나가버리는 경우가 많으니깐... 그리고 내가 한번 고정관념이 생겨버리면 '재는 원래 저랬지...' 하면서 그와 관련된 행동은 잘 기록하지 않는 것도 같아요... 그리고 다음해에 그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아이가 우리반에 있으면... 내가 만약에 기록을 해놓고 또 본다면 다음 상황이 생겼을 때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냥 또 상황이 생기면 오로지 그냥 내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늘 한자리에만 머물러 있죠...

(윤교사의 개인인터뷰, 2014년 1월 18일)

그러니깐 짧게 짧게는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보이는 행동을 일화를 관찰하지만... 그 아이의 내면으로 까지 들어가서 아이의 심리가 이랬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문제행동에 대해서는 해석을 하지만 그런 행동을 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깊게 분석도 못하고 일화기록으로 남겨지는 것 같아요...

(박교사의 개인인터뷰, 2014년 1월 18일)

유아평가 시 관찰결과를 적절히 분석하는 일은 잘 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이성희, 2003; 이순자, 2004; 최미숙 등, 2009; Nah & Kwak, 2011)처럼, 윤교사와 박교사는 반복적인 행동을 보이는 유아를 '재는 원래 그랬지..'하며 유아의 행동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않고, 유아 행동을 추론하고 평가하지 않음으로써 유아의 발달단계와 심리상태를 이해하지는 못한다고 한다. 이는 유아교육현장에서 일화기록을 일정한 시기와 분석기준을 정해 놓고 정기적으로 그 자료를 요약, 정리하며, 분석을 통한 유아의 발달이해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함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이러한 유아의 발달과 행동에 대한 총체적 평가 자료의 기록으로 유치원 생활기록부를 작성한다. 그러나 참여교사들은 생활기록부 작성 시 누적된 일화기록 자료를 참고하기 보다는 자신의 기억이나 일명 지침서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화기록이 추후 생기부를 쓸 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생기부는 지침서를 다 끼고 하니깐... 복사해서 집에 들고 가지... 사실 일화기록을 복사해서 집에 들고 가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2회차 포커스그룹인터뷰 중에서, 윤교사, 2013년 12월 09일)

일화기록은...(머리를 가우뚱거리며) 그걸 토대로 적지는 않고... 그냥 자기 머릿속에 있는... ○○하면 생각나는 것? ○○는 밥은 빨리 먹지만 다른 것은 잘 한다... 하면서 예시문 보고 갖다 붙이기? 너무 짧게 써도 안된다고 하니깐... 한 문장이랑 다른 문장이랑 합쳐서... (중략) 생기부는 그 아이에 대해서 머릿속에 생각나는 거? 위주로 하는 것 같아요...

(3회차 포커스그룹인터뷰 중에서, 김교사, 2013년 12월 15일)

차선례(1997)는 생활기록부 작성 시 성장 발달 상황란에 기록하는 자료는 실제 객관적인 준거에 따른 평가결과 보다는 교사의 관찰이나 기억 등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처럼 참여교사들은 생활기록부 작성 시 누적된 일화기록의 자료보다는 아이에 대해 생각나는 이미지나 기억에 의존하거나, 일명 지침서를 참고하여 유아발달을 적당한 문구에 꿰어 맞추고 있다고 이야기 한다. 이 또한 누적된 일화기록이 유아를 이해하는 자료로 사용되지 않고, 평가결과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2) 일화기록을 활용한 부모와의 의사소통 단절

참여교사들은 수집된 일화기록의 자료를 통한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부모와의 상담 때 가장 잘 활용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하지만 막상

부모상담일이 되면 기록이 아닌 당일에 보여준 유아의 행동만을 기억하며 이야기한다는 모순을 보여준다.

일화기록... 상담할 때 제일 많이 활용되죠... 근데 막상 상담할 때에는 전날 일화기록을 보거나... 그렇게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날 하루 관찰해보면서... 이 아이가 개랑 많이 놀더라... 하면서... 당일 있었던 일을 '요 근래에는 그 아이를 주로 놀이를 합니다' 하는 경우도 있었고... 내 자신도 조금 부끄러운데 평소에 늘 관찰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4회차 포커스그룹인터뷰 중에서, 김교사, 2013년 12월 20일)

관찰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상담일이 되면 아이에 대한 특별한 점을 잘 기억해 내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일 상담이라면 점심시간에 그 아이한테 한번 더 가보고... 밥을 어떻게 먹는지, 식습관은 어떤지...

(4회차 포커스그룹인터뷰 중에서, 윤교사, 2013년 12월 20일)

위의 이야기에서 나타난 참여교사들은 일화기록을 부모상담 시 가장 잘 활용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면서 막상 부모상담일이 되면 당일에 보여준 유아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교사는 당일에 관찰한 유아의 놀이상황을 보고 '근래에는' 단어를 쓰면서 평소에 관찰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윤교사는 자신은 관찰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상담 시 부모와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당일 날 소재거리를 찾기도 한다.

참여교사들의 이야기와 같이, 유아평가 결과 활용에 관한 연구(방춘남, 1999)에 따르면 대부분의 유아교사들이 평가결과를 부모와의 면담 시 가장 잘 활용한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화기록이 부모와의 면담 시 유용하게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에 대해 다음의 송교

사의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솔직히 일화기록에 내가 한 기록들은... 내가 기록을 했지만 너무 급하게 한 기록들도 많고, 정확하다는 장담을 스스로도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기록은 했지만 검사를 위해서 빈칸을 채워 넣은 경험도 있고...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적은 것이라서 해당하는 아이에 대한 일화기록은 맞지만 그 주변상황이 정확한지... 제 자신도 장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4회차 포커스그룹인터뷰 중에서, 송교사, 2013년 12월 20일)

(일화기록을) 한번 쓰면 두 번 다시 보지 않는다는 교사는 한 번에 몰아서 쓰거나 자신도 정확하지 않은 기억으로 썼기 때문에 이전의 일화기록보다는 상담하는 당일 날 아이의 모습을 관찰하여 상담을 하고 있다는 한 교사의 말에 많은 교사가 공감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사실 인터뷰를 하고 있지만 인터뷰이의 이야기 속에서 나의 모습도 함께 찾을 수 있다. 특히 일화기록을 잘 활용하지 못해서 학부모 상담하는 당일날 아이의 모습을 부랴부랴 관찰하여 끄적여 놓는 일들... 다른 선생님들의 말에 공감을 하면서도, 일화기록을 잘 하고 있는 교사들의 모습에서는 내 모습을 반성하기도 하였다.

(연구자 저널 4회차, 2013년 12월 20일)

송교사가 평가한 일화기록은 유아교육기관이나 유치원평가에 의해 강압적으로 기록하였기 때문에 교사자신도 일화기록이 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장담할 수 없음을 토로한다. 이는 일화기록을 형식적 문서로서 의무적으로 기록하기 때문이라는 앞의 이야기와 일치하며, 이러한 일화기록은 부모와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었다.

(3) 일화기록을 통한 교육과정 재구성과의 단절

참여교사들은 교육과정 수립 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참고하여 계획하고 재구성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과정은 피드백 없는 답습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다음의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연구자 : 수업을 계획하시거나 교육과정을 수립하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최교사 : 저희는 누리교육과정 지도서 보고 그대로 짜고 있어요...요즘엔 또 워낙 누리교육과정 대로 하는 것을 중요시 하니깐...

연구자 : 그럼 전년도 교육과정의 평가가 피드백이 되면서 구성되나요?

윤교사 : (말을 막아서며) 이거는 너무 전문가인 것 같아요...

최교사 : 아니요... 아니요... 그런 경우는 없죠...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는 융통성 있게 하라고 하잖아요... 흥미에 따라서... 근데 그게 일화 기록을 보면 아이들의 흥미나 관심, 발달이 보일 텐데... 그런 경우는 잘... 없죠...

연구자 : 왜 그런 경우가 없는 것일까요?

최교사 : 보통 그렇게는 안하죠... 계획된 것이 있으니까... 또 바꾸기란 쉽지 않죠...

윤교사 : 또 잘못 바꿨다가 유치원평가나 지도점검이 왔을 때 누리과정대로 안했다고 할까봐... 그래서 또 서류를 고쳐야 하는 문제도 있어요...

(3회차 포커스그룹인터뷰 중에서, 2013년 12월 15일)

포커스그룹인터뷰에 나타난 교사들의 이야기에서는 교육과정 구성 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보고 그대로 계획한다고 한다. 개별유아의 능력, 요구, 흥미를 고려하고 적절한 상호작용을 통해 기존의 교육과정을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하려는 과정은 보이지 않았다. 이는 유아의 평가 자료에 근거하여 이전년도 교육과정 평가를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활동이나 교육과정 재구성에서 기관의 실정에 맞고 개별유아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

한 교육경험을 형성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다음 인터뷰로부터 알아볼 수 있었다.

연구자 : 이렇게 문서로 남겨진 일화기록을 학년말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김교사 : 저희는 그냥 묶어서 철 하는 것 같아요... (중략)

박교사 : 우리는 지하창고로 가잖아요... 그냥 폼아놓는데... 그래서 지하창고가 예전 문서로 가득 차잖아요...

윤교사 : 마분지 철해서... 창고 한 가득이죠...(후략)

(4회차 포커스그룹인터뷰 중에서, 2013년 12월 20일)

실제로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이전년도 평가에 근거해서 해야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잘 안되죠... 우리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평가는 하죠... 그런데 그게 약간 의무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그것이 반영이 안되니깐... 또 교사도 그대로 아이들하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했던 연령을 계속 맡을 수도 있잖아요...그럼 다음 교사는 내가 맡은 아이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그럼 또 이전에 했던 것과 똑같이 하겠죠... 실제로 6세 선생님이 7세 될 선생님한테 내년에 보세요...한다 치더라도, 그 선생님도 볼까요... 이것도 아예 안되고, 이번에 저도 7세를 또 맡겠지만... 작년에 했던 것 볼까? 이것도 안되고. 차라리 그냥 걱정되거나 특별한 그런 경우에는 구두로 '선생님 이 아이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고 전달하고 다음 선생님도 생활하다가 '애가 이런 행동을 보이던데 6세 때도 그랬어요?' 하면서 묻고... 그렇게 알려주는 것이 더 편할 것 같아요...

(강교사의 개인인터뷰, 2014년 1월 16일)

참여교사들은 유아의 흥미와 발달의 증거가 되는 누적된 일화기록을 유아가 다음 학년으로 진급했을 시 유아의 발달기록을 살펴보지 않음을 이야기하며, 전달되더라도 구두로 전달되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는 교육과정 평

가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동시에 상급반 교사와의 소통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유아의 누적된 유아평가의 결과는 유아의 상급반 교사가 유아를 이해하고 피드백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것은 또한 유아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학습경험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교육과정 재구성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다. 기록과 활용은 왜 어려운가?

참여교사들은 앞서 밝혔던 일화기록의 기록과 활용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교사가 일화기록을 함에 있어서 능동적인 평가자가 아닌 주변의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수동적인 자세로 평가를 하고 있고, 그 이면에는 일화기록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무지로부터 비롯되었다. 또한 참여교사들 유치원 현실의 원천적인 껍박함에서 오는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1) 교사의 수동성과 무지

참여교사들은 일화기록을 의무감으로 한 기록보다는 교사의 머릿속에 있는 기억을 더 의미 있게 생각하였으며, 때로는 구두로 한 평가를 ‘나는 관찰하고 있다’고 오해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기록과 활용에 있어서 유아교육 기관의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수동적인 평가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윤교사 : 일화기록이 아무래도 계획적으로는 잘 안되니깐... 근데 이게 의무감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 애에 대해서 기록해야 할 부분이 생기는데, 이미 일화기록을 했기 때문에 안하는 경우도 생기고...그 아

이에 대한 기록을 많이 남겨놓을수록 좋다는 것을 알지만... 만약 11월에 '○○○'을 했으면 그림 사건이 생겨도 머리로만 기억하고 엄마한테 쪽지로만 보내지... 내 스스로의 기록으로 남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강교사 :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런 경우 많아요. 나중에 말해야지 하고 머릿속에만 있는데. 종이에 남겨지지 않는 기록들...

(1회차 포커스그룹인터뷰 중에서, 2013년 11월 16일)

박교사 : 맞아요... 의무감으로 지금 내가 하나 당장 적어야겠다는 생각에 뭔가 하나 적기는 적었는데...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적은 일화기록보다는 내 머릿속에 있는 아이의 행동들이 더 의미 있는 행동이 되는 거죠...

연구자 : 왜 그렇게 되는 거죠?

박교사 : 정작 큰 사건이 발생하면 그것을 뒷마무리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김교사 : 나도 공감하는 것이 차라리 내 머릿속에 있는 그것이 더 인상적인 경우가 훨씬 많죠... 나도 기록하지 않은 것이 많으니까요...

(4회차 포커스그룹인터뷰 중에서, 2013년 12월 20일)

유아평가의 기록 면에서 보면, 이야기 나누기 활동 및 유아의 자유선택 활동에 대한 평가가 기록되지 않고 구두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윤경, 2001; 이순자, 2004). 참여교사들은 일화기록에 남기기 이전에 부모와 상담을 한 유아의 의미 있는 행동은 전달하였기 때문에 따로 일화기록에 남기지 않고 있었으며, 뒤이은 기록의 과정을 의미 있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일화기록으로 남겨진 기록보다는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기억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참여교사들의 이러한 생각은 일화기록에 대해 유아교육기관에서 '한 달에 한번' 또는 '검사하지 않는' 방침에 따라 수동적인 평가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다음의 인터뷰에서 읽을 수 있었다.

(전략) 그런데 만약 ‘한 달에 한 번 무조건 써야 된다’ 라는 이런 방침이 있는 유치원이면은… 훨씬 더 낫겠죠… 그런데 프리하게 ‘그냥 관찰해라’ 이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이면 안 할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이랑…

(3회차 포커스그룹인터뷰 중에서, 최교사, 2013년 12월 15일)

딱히 유치원에서 압박감 같은 것을 주지는 않고 있으니깐… 이걸 꼭 써야된다! 써라 써라 써라! 이런 건 아니니깐… 나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유치원에서 일화기록을 쓰세요! 감사합니다! 하면은 억지로 라도 찾아서 쓰겠지만… 따로 압박은 안 받고 있으니깐… (후략)

(3회차 포커스그룹인터뷰 중에서, 송교사, 2013년 12월 15일)

음… 근데 우리가 좀 강압적으로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에서도 그냥 풀어주시니깐… 우리가 좀 덜하게 되고…(웃으며) 너무 자유를 주니깐 그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검사를 하면 지금보다는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 그런데 스트레스는 받겠죠… 왜 이렇게까지 하노… 하면서…

(김교사의 개인인터뷰, 2014년 1월 11일)

참여교사들은 일화기록에 대한 유아교육기관의 ‘강압성’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었다. 유아교육기관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한다거나 일화기록 문서에 대한 중요성을 교사들에게 인식시키지 않는 이상 자발적으로 일화기록을 하지는 않고 있다.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일화기록을 교사의 자율성으로 맡기고 있었지만 교사들은 그 자율성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유치원평가, 지도점검, 기관에서의 검사 등의 강압적이지 않으면 쓰지 않고 있는 수동적인 평가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일화기록에 대한 유아교육기관의 방침이 다른 만큼 일관성 없이

서로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는 일화기록의 양식은 참여교사들을 혼란에 빠뜨리기도 한다.

일화기록들이... 유치원마다 다르게 사용되고 있죠... 교사마다도 그렇고... 원장선생님이나 원감선생님에 따라서도...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깐...유치원을 옮길 때 양식에 대한 혼란이 생기는 것 같아요...

(1회차 포커스그룹인터뷰 중에서, 윤교사, 2013년 11월 16일)

우리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이 4년에 한 번씩 바뀌거든요... 그전에 원장님이 일일계획안 밑에 그 전날 적었던 아이들 일화기록을 제출해야 했기 때문에 매일 적어야했죠... 그리고 매일매일 검사를 했죠... 이제 이번 바뀐 원장님은 선생님들이 어련히 잘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을 일일이 터치를 안하거든요... 믿어주면 그만큼 해야 하는데... 나도 사람인지라... 피를 피우게 되는 것 같아요...

(1회차 포커스그룹인터뷰 중에서, 최교사, 2013년 11월 16일)

이 유치원에 처음 와서 일화기록들이 예전이랑 다르고, 여기는 영역별로 적게 되어있거든요... 아무런 안내도 없어서 어떻게 쓰는지 몰랐는데... 교실을 정리를 하다 보니깐 이전 선생님이 작성하셨던 일화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몇 번 보고 '아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하고 이해를 하고 쓰기 시작했죠...

(박교사의 개인인터뷰, 2014년 1월 15일)

일 화 기 록			
관찰아동	000	관찰일	4/10
장 면	자유선택활동	관찰장소	●●● 반
기 록	<p>블록놀이를 하는데 블록을 들고 강의대에 올라가서 달로 뛰어가다가 다시 올라가 뛰길 반복함. 위험한 행동이라고 하자 내려와 앉음.</p>		

[그림 5] 일화기록 서식의 예시 ①

또한 참여교사들은 자신이 기록한 일화기록의 정확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음을 다음의 이야기에서 읽을 수 있었다.

일화기록 밑에도 평가를 써야 하는데... 평가도 어떤 식으로 써야 하는지, 아이가 앞으로 고쳐 나아가야 할 부분인지, 무엇에 대한 평가인지 전혀 감이 안 올 때도 있었어요...

(박교사의 개인인터뷰, 2014년 1월 15일)

일화기록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지, 현장에서 지내면서 한번도 본 적이 없고, 책으로만 배웠지만, 학교 다닐 때는 우리가 학생이니까 나에게 막 와 닿지 않고... 그냥, 현장에 와서 책 한번 보고 '아, 이렇게 일화기록 써야 되는 거구나' 하고 그냥 썼기 때문에 과연 내가 잘 하고 있는 것인지... 다르게 적고 있는 것은 아닌지...나도 잘 모르겠어요...그래서 그런 연수가 있다면... 들으면 좋겠죠...

(3회차 포커스그룹인터뷰 중에서, 최교사, 2013년 12월 15일)

용어 같은 것도요... 뭐라고 해야 하지... 그리고 요약에는 제 생각이 들어가야 하는데... 저는 관찰내용 자체에서 제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헛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이트로 계속 지우고, 또 쓰고, 뭔가 사실만 계속 적으려고 하다 보니깐 요약에 내 생각을 적는 건데... 그래서 요약과 관찰내용을 기술하는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3회차 포커스그룹인터뷰 중에서, 엄교사, 2013년 12월 15일)

객관적으로 적으라고 하는 것이... 적으면서 마음에 걸리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적으라고 해서 그 아이의 행동 대해서 줄줄줄 줄 적고 있는데... 그게 진짜 객관적으로 적고 있는 건지... 그냥 아이의 행동을 그대로 옮겨 적는 건지... 그게 약간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4회차 포커스그룹인터뷰 중에서, 윤교사, 2013년 12월 20일)

위의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교사의 의문은 유아를 관찰하며 일화기록을 하고 있지만 기록 시 사용하는 용어, 객관적 진술, 평가 방법 등을 이론에 맞게 기록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나타낸다. 그리고 정확성에 대한 고민의 원인을 송교사, 최교사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아니요 없어요! 한번도 없고... 실습할 때, 담임선생님이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알려준 적은 있어요...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없어요!(점점 커지는 목소리)

(3회차 포커스그룹인터뷰 중에서, 송교사, 2013년 12월 15일)

처음에는 실습할 때 지도 선생님이 내가 쓴 일화기록 보고 고개를 절레 절레 흔들면서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빨간 색 깔로 줄 그으면서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책을 복사해서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한 번 다시 읽어 봐라고...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지도는 받은 적은 있지만...그 외에는 연수도 없고, 누가 저한테 알려준 적도 없었어요...

(3회차 포커스그룹인터뷰 중에서, 최교사, 2013년 12월 15일)

또한 일화기록을 적을 때 ‘과연 내가 잘 하고 있는 것인지... 다르게 적고 있는 것은 아닌지...나도 잘 모르겠어요...’하는 한 교사들의 말에 모두가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학교다닐 때 수업시간을 제외하면 현장에 와서는 그 누구도 일화기록의 기술방법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 선생님은 단 한번, 유치원 실습 나갔을 때 담임선생님이 일화기록을 적는 방법을 책을 복사해주면서 처음부터 알려주셨다... 라고 했다. (중략) 교육 계획안 같은 경우에는 목표 진술 방법에서부터 단위활동을 계획하고, 평가를 하는 부분까지 매우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교육계획안만큼 유아평가에서 중요시하고, 많은 유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화기록에 대한 연수가 있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번뜩였다.

(연구자 저널 3회차, 2013년 12월 15일)

위의 이야기에 나타난 정확성에 대한 고민은 유아교육현장에서 일화기록에 대한 어떠한 피드백도 없었다는 점에서 나타났다. 실습교사일 때 자신의 지도교사로부터 받은 피드백으로 지금까지 일화기록을 제 나름대로 하고 있었으며, 유아교사가 되어서는 일화기록에 대한 연수가 없었기 때문에 교사로서 자신을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음을 토로하고 있었다.

참여교사들은 유아교육기관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에 따라 제 나름대로 일화기록을 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수동적인 입장과 일화기록에 대한 무지는 일화기록을 기록하고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2) 유치원 현실의 어려움

유아교육기관에서 교사 대 유아의 높은 비율, 교사의 과도한 업무는 일화기록의 기록 및 활용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었다. 참여교사들은 한 교실 내에 있는 많은 수의 유아들로부터 오는 어려움과 등원부터 하원까지 자신의 손을 거치면서 진행되는 하루의 바쁜 일과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 유치원 현실의 어려움을 읽을 수 있었다.

너무 아이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학기 초에는 너무 힘들고 만 3세 다 보니까... 처음에는 적응도 못하고, 울고, 기본생활습관도 안 잡혀져 있고, 머리부터 끝까지 다 해줘야 하는데... 그런데 그 많은 아이들을 내 눈에 다 담을 수 없으니까... 음... 학기 초에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적응 되서 2학기 말 되면 괜찮은데... 학기 초 1학기 때까지는 23명 정도가 무리수가 있다!

(3회차 포커스그룹인터뷰 중에서, 최교사, 2013년 12월 15일)

저는 바로바로 메모해야 하니깐... 아이들도 진짜 많고... 계속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메모하고 있으면 '어 선생님!'을 부르는 소리가 여기 저기에서 들리니깐... 내가 눈이 두 개 밖에 없는데... 그것을 다 관찰을 못하잖아요... 그런 점이 좀 힘든 것 같아요...

(3회차 포커스그룹인터뷰 중에서, 엄교사, 2013년 12월 15일)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한 교사 대 높은 유아의 비율, 수업 외적인 업무가 많아서 일화기록을 할 때 힘든 점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 특히나 만3세담임을 맡고 있는 선생님은 초기 3, 4, 5월달은 아이들 점심시간, 인사, 옷 입기 등 유아의 행동을 하나하나 메모하고 있을 시간이 부족하고, 원아들은 너무 많다는 이야기에서 나 또한 그게 공감할 수 있었다. 교사들은 어린 유아들이다 보니 바로 기록하기가 어렵고, 잦은 전화 상담으로 부모와 유아의 일화나 생활에 대해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일화기록하는 것이 무의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연구자 저널 3회차, 2013년 12월 15일)

한 학급당 원아 수는 시도별로 규정하고 있는데 한 교사 당 부산의 경우, 만3세 18명 이하, 만4세 26명 이하, 만5세 28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교사는 만 3세만 담임으로서 23명의 원아들의 기본생활습관 적응으로 인하여 학급초에 겪는 어려움을 토로했으며 엄교사 또한 한 학급에 많은 유아들로 인하여 두루 관찰하는 어려움을 이야기 하고 있었다. 이는 교사들이 유아 평가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높은 교사 대 유아 비율'이라고 응답하고 있다는 김영선(2006), 김윤경(2001), 손미경(1999), 엄기자(2000)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한편, 교사의 과다한 업무는 오늘을 되돌아보는 시간보다는 내일을 준비하는 것에 급급한 교사의 모습을 보여준다.

솔직히 아이들이 다 하원하고 교실로 들어가면... 오늘을 되돌아보는 시

간 보다는 내일을 준비하기에 급급하죠... ‘내일은 뭐하지?’ 하면서... 유치원별로 요즘에는 행사도 많이 늘었고... 예전에는 음악회 이런 부분만 하면 끝났지만 요즘에는 엄마들도 오고, 달별로 하는 행사가 정해져 있으니깐... 5월달에 행사가 있으면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때 할 수 있는 활동지나 작품을 정한다던지... 그런 것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교사가 요즘에는 특성화수업까지 같이 하니깐... 그거를 또 해야 하고 특성화가방을 들고 가져가야 하니깐... 한 달에 한번... 일화기록 하기도 바쁘죠...

(윤교사의 개인인터뷰, 2014년 1월 18일)

우리 유치원의 같은 경우는 반일반 아이들이 2시에 귀가했으면 참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는 방과후를 신청한 아이들이 워낙 많으니깐... 방과후반 교사나 교실이 따로 있으면 하원 후에 빨리 청소도 하고, 교실에서 앉아서 오늘 하루도 생각해 보고 할텐데... 그럼 시간적 여유도 더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김교사의 개인인터뷰, 2014년 1월 11일)

솔직히 해야 하는 서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안전, 현장학습, 패밀리데이, 인성을 맡고 있으니깐... 이것이 1-2주에 한번씩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그럼 또 계획안 작성해서 파일 만들어야 하고, 끝에 사진 찍어서 첨부해야 하고... 이런 일들에 행사까지 겹치면... 사립에는 특히나 행사도 많잖아요... 그럼 일화기록하는 시간은 커녕 수업 준비하는 시간도 없는 거죠... 그럼 또 반복이겠죠... 누군가는 한 달에 한 번도 작다고 하는데... 한 달에 한 번도 솔직히 버겁죠... 그게 현실이죠...

(1회차 포커스그룹인터뷰 중에서, 박교사, 2013년 11월 16일)

위의 이야기들에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나라 유아교육 현장은 아이도 교사도 너무 바쁘다. 하루 일과가 지나가는 동안 자신이 무엇을 하였고, 또 무엇을 하고 있고, 자신이 왜 지금 여기에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잠깐

의 여유조차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윤교사와 김교사는 하루의 수업 계획에서부터 월별 행사계획 및 준비, 특성화 활동, 방과후 과정까지 모두 자신의 손을 거치면서 진행되는 하루의 바쁜 일과를 토로하였다. 이에 박교사는 1인 교사가 담당하는 많은 업무로 인해 한 달에 한번 일화기록하는 것도 힘들고 그게 현실이라고 표현한다. 이는 유아평가 실행 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교사의 과도한 업무로 인한 시간부족이라고 응답하였던 김지연(2007), 서은주, 홍순옥(2009), 손희경(2011), 유종수(2001)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2. 사립유치원 일화기록의 과제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이야기 하는 일화기록의 어려움, 갈등과 단절의 현실과는 대비되는 일화기록을 함으로써 교사와 유아에게 긍정적으로 다가왔던 경험이 이야기의 곳곳에 나타나 있었다. 또한 교사와 유아에게 교육실천적인 의미를 지닐 수 있도록 일화기록이 나아가야 할 과제를 이야기하였다. 유아발달 이해 자원으로서의 기록, 순환적 활용으로의 기록, 교사의 평가역량 강화와 근무환경 개선의 제도적 지원과 같은 과제가 그들 앞에 제시되고 있었다.

가. 유아발달 이해 자원으로서의 기록

참여교사들은 유아발달 지원을 위한 자원으로서의 일화기록에 대한 앞으로의 도전에 대해 유아의 모든 발달영역을 골고루 기록하기 위해서는 유아

의 일상생활과 다양한 공간에서의 모습을 다양한 방법으로 기록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1) 문제행동의 기록에서 유아의 모든 발달영역의 기록으로

참여교사들은 일화기록 시 주로 유아의 문제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이 기록한 일화기록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유아의 모든 발달영역에서의 기록이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음을 최교사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사실 일화기록을 보면 친구관계가 주로 나오고 가끔씩 점심 관련한 상황이 주로 기록되니깐... 이렇게 사회성영역만 계속 관찰되는 것 보다는 아이의 구체적인 언어능력, 건강능력을 세분화하여 관찰하면 좋겠조... 그런데 지금처럼 자유선택활동 시간에만 주로 이루어지다 보면... 다양하게 관찰한다는 것은 한계가 올 수도 있겠조... 주로 친구관계 위주로 보게 되니깐...

(최교사의 개인인터뷰, 2014년 1월 10일)

최교사는 자신이 기록한 일화기록을 보며 자신이 관찰하고 기록한 것이 '사회성영역'에 치우쳐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다양한 영역의 관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었다. 유아평가의 기록에 관한 연구(이경화, 2001)에 따르면, 유아교육기관에서 기록해야 할 내용은 유아의 학습과 발달의 모든 영역이 포함되며, 평가목적에 입각하여 선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유아에 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유아의 여러 측면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기록해야 하며, 유아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와 같은 유아의 전반적인

능력과 유아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더불어 도움을 받았을 때 할 수 있는 것도 기록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유아의 문제해결 과정과 아이디어를 기록해야 하는데, 원인과 결과 그리고 한 문제가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떻게 해결되었는가를 기록할 수 있다.

그럼 유아의 학습과 발달의 모든 영역이 고루 관찰하기 위해서는 어떤 도전이 있는지 다음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김교사 : 지금처럼 하면 다양하게 일화기록을 할 수는 없죠...

엄교사 : 그럼 아예 틀이 5개 영역으로 나누어져서 나와도 좋을 것 같아요...

박교사 : 맞아요... 지금 틀은 관찰되기 쉬운 행동만 주로 해도... 별로 상관이 없잖아요...

김교사 : 일화기록 틀 자체가 5개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면 교사도 아이의 어떤 영역의 관찰이 부족한지 계획을 세울 때 더 좋을 것 같네요.

(중략)

연구자 : 그럼 초임교사들의 경우에는 ‘관찰할 것이 없다’라고도 토로했는데... 5개 영역들 중에서 어떤 행동들을 관찰할 수 있을까요?

윤교사 : 건강영역에서는 대소근육 활동... 뛰기, 가위질 뛰 이런 부분도 할 수 있고...

김교사 : 예술경험에서 노래, 악기 등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송교사 : 진짜 생각해보니깐 많네요...

윤교사 : 우리가 안해서 그렇지 찾아보면 더 있다니깐요...

(5회차 포커스그룹인터뷰 중에서, 2013년 12월 27일)

McFarland(2008)은 다양한 영역의 일화기록에 대한 방안으로 정기적으로 각 아이들에 대해 어떤 분야가 관찰되어 지는지를 기록하고, 그런 다음 적게 기록된 영역에서 더 많은 정보 수집에 집중할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참여교사들은 모든 발달영역에의 기록을 위해 각 영역별로

일화기록이 될 수 있는 새로운 틀을 제안하였다. 이는 각 유아의 일화기록이 어떤 발달영역에서 주로 관찰되며, 어떤 발달영역에서 기록이 부족한지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참여교사들은 이야기를 통해 다양한 발달영역에서 관찰할 수 있는 유아의 행동이 많다는 것을 느끼면서 놀라움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그들은 스스로 유아의 문제행동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관찰의 눈에서 벗어나 더 많은 것을 의미 있게 바라볼 수 있는 관찰의 눈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2) 제한적 시간과 공간에서의 기록에서 일상생활과 다양한 공간의 기록으로

참여교사들은 일화기록 시 주로 자유선택활동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이루어지고 이 또한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제한된 시간에서의 기록이 아닌 유치원에서 보내는 등원에서 하원까지의 일상생활에서 일화기록의 필요성을 윤교사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다.

어떤 행동에 대해서 집중하려면 그 아이에 대한 일화기록이 한달에 한번, 일주에 한 번의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행동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한번 기록이 되고, 두 번째 기록이 되었을 때의 공통점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애가 만약에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한 활동에 집중하지 못하고 비교적 짧은 시간에 활동을 바꾸는 모습이 보인다면, 단위활동시간에서 활동의 집중력은 어떤지, 과제수행력은 어떤지, 흥미 있어하는 활동에 따라 집중시간이 바뀌는 것인지, 다방면에서 지켜봐야 겠죠...

(윤교사의 개인인터뷰, 2014년 1월 18일)

유아교실에서 효과적인 관찰과 기록은 다양한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맥락은 유아의 행동을 좌우하는 주요 요소로, 평가를 염두에 둔 체계적인 교실환경의 변화는 참 평가를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다(강숙현, 2001). 위의 이야기 속 윤교사는 한 가지 행동에서 보이는 유아의 모습을 일반화시키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기록은 유아의 전형적인 매일의 일과와 일상생활에서의 관찰 유아가 선택하는 흥미영역과 놀이 활동의 조사, 발달의 개괄, 유아의 작업표본, 기타 기관 내에서 실시된 검사자료 그리고 하루일과 중 전형적으로 반복되는 순간들이 기록의 맥락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것은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들이 보내는 어떠한 시간에도 가능하다(이경화, 2001). 또한 유아의 모든 일과 속에는 실내 활동뿐만 아니라 실외 활동도 포함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일화기록이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다음 교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알아볼 수 있었다.

윤교사 : 나는 예전에 있었던 원감선생님이 해주셨던 말 중에... 유아 놀이상황만 계속 보다 보면 유아 개인의 특성을 발견하기 힘들 수도 있다... 하면서, 오늘은 이야기나누기 시간. 내일은 미술활동시간 이렇게 좀 나누어서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해 주셨던 적이 있거든요... 계획적으로 했었던 부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강교사 : 자유선택활동시간과 단위활동시간에 관찰할 수 있는 모습들이 다르니깐 시간이나 활동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이 그나마 좋을 것 같아요.

연구자 : 실외활동에서의 어떻게 생각하나요?

윤교사 : 바깥놀이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하루에 1시간씩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죠.

김교사 : 근데 바깥놀이에서는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화기록은 더 안 떠오르게 되는 것 같아요...

강교사 : 그럼 바깥놀이 시 안전하게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관찰할 수도 있겠네요! 운동능력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김교사 : 그러네요... 그럼 계획을 할 때 실외활동에서 관찰하는 날도 따로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강교사 :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계획적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5회차 포커스그룹인터뷰 중에서, 2013년 12월 27일)

참여교사들은 유아의 하루 일과 속에서 다양한 공간의 일화기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일화기록의 계획'을 제안하고 있다. 유아의 학습과 발달의 많은 측면들은 부분적으로 평가될 수도 있지만 유아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많은 맥락들은 유치원의 일상생활에 존재한다. 또한 유아들은 비형식적이고, 편안하며, 친숙한 상황에서 잘 수행할 수 있다(Camden, 2001). '계획성'있는 일화기록은 교사로 하여금 유아의 일상생활에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에서 일화기록을 해야 함을 인식하게 해주고, 유아의 성장, 발달 혹은 성취를 자연스러운 맥락에서 평가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한편, 언제 기록 했는가 또는 할 것인가에 따라 관찰의 내용 및 대상이 결정될 수도 있으므로, 기록장면과 기록의 내용은 상호 역동적인 관계를 지닌다. 이러한 기록 장면 및 내용의 선정은 유아의 발달상황, 현재 학습의 상황, 교사의 기록의 준비 여부등과 관련 있는 것으로서, 유연한 자세로 항상 관찰하고 기록할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하겠다(이경화, 2001).

(3) 형식적 서류로서의 기록에서 실천적 자료로서의 기록으로

일화기록이 유아의 행동과 발달적 수준을 이해하고, 학습 진보를 평가하는 실천적 자료로서 기록되기 위해서는 누적된 일화기록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략) 일화기록이 검사받기 위해 내는 서류라고 느꼈던 것이 한번 쓰고

다시는 읽어보지 않으니깐 그런 것 같아요... 만약 한번 작성한 일화기록을 일과 후에 다시 읽어본다면 다음날 아이에게 대하는 행동과 말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일화기록을 통해 아이에 대해 뭔가 발견하는 경험이 늘어나면 나 스스로 일화기록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겠죠. 그럼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일화기록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생기겠죠(웃는다).

(윤교사의 개인인터뷰, 2014년 1월 18일)

윤교사는 하루 일과를 마친 후 시간을 내어 일화기록을 읽어보는 시간을 통해 다음날 유아를 대하는 행동과 말, 즉 피드백이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일화기록을 통해 유아의 발달을 선불리 추적하고 진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단 몇 분의 시간일지라도 매주 시간을 내어서 지난주의 기록들을 검토하는 것은 모든 유아들이 관찰되어 지고 모든 발달 영역들이 평가되어지는지를 알아볼 수 있고(McFarland, 2008), 유아의 발달을 이해하고 추적하여 그에 적절한 지원 및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실천적 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일화기록을 실천적 자료로 기록하기 위해서는 단지 글로 남겨진 기록뿐만 아니라 생생한 기록으로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기록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유아의 일상생활을 더욱 객관적으로, 상세히 기록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전략) 저는 한 번씩 유아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요. 관찰해놓고 사진을 찍어놓은 장면을 보면, 내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었던 것이 사진에서 좀 더 사실적으로 기록되어지고, 이것은 부모에게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나는 것이 모래놀이! 흙 만지는 것을 진짜 싫어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진짜 재밌게 잘

놀이하니깐... 한참을 보고 있더니 모래담는 통을 들고오더니 모래놀이를 하는거예요.. 어머니께 말씀 드리니 가정에서도 조금씩 놀이하기 시작했 다며... 아이의 모습을 서로 공유할 수 있었어요!

(2회차 포커스그룹인터뷰 중에서, 김교사, 2013년 12월 09일)

일화기록					
관찰아동	○○○	관찰영역	바깥놀이시간	관찰일	2013. 5. 9
기록	<p>거닐남을 다 모래 담는 통을 들고오더니 모래놀이를 하는거예요.. 어머니께 말씀 드리니 가정에서도 조금씩 놀이하기 시작했 다며... 아이의 모습을 서로 공유할 수 있었어요!</p> <p>○○ 가 바깥놀이시간에 가서 모래 담는 통을 들고오더니 모래놀이를 하는거예요.. 어머니께 말씀 드리니 가정에서도 조금씩 놀이하기 시작했 다며... 아이의 모습을 서로 공유할 수 있었어요!</p> 				
해석	<p>모래놀이시간에 모래 담는 통을 들고오더니 모래놀이를 하는거예요.. 어머니께 말씀 드리니 가정에서도 조금씩 놀이하기 시작했 다며... 아이의 모습을 서로 공유할 수 있었어요!</p>				

[그림 11] 사진을 첨부한 일화기록의 예시

김교사는 바깥놀이시간에서 모래놀이를 하는 유아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놓음으로써 유아의 표현하고자 했었던 역할을 객관적이고, 상세히 기록할 수 있었고, 이는 이후 부모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였다. 이처럼 사진은 유아들의 발달을 문서화하는데 훌륭한 방법이 될 수 있고, 교사들이 관찰한 유아의 의미 있는 행동을 사진으로 남길 수 있으며, 그런 다음 사진에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붙일 수 있다(McFarland, 2008). 이러한 방법은 각 유아의 발달에 관하여 매우 풍부하고 시각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하고, 사진을 출력하거나 컴퓨터 파일로 기록을 유지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을 최소한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 밖에 다양한 방법의 생생한 기록에는 비디오와 오디오를 들 수 있다.

비디오 기록은 유아들의 활동을 시각적, 청각적인 측면의 관찰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며 실시간 활동의 전반적인 진행사항들을 볼 수 있고(이경화, 2001), 오디오를 통한 녹음자료는 유아들의 언어발달이나 언어적 상호작용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얻는데 유용하다(황해익, 송연숙, 정혜영, 2008). 이와 같은 매체를 사용한다는 것은 행동과 언어를 빠짐없이 기록할 수 있고, 특히 반복해서 관찰할 수 있다는 점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관찰된 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점 때문에 관찰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유용하다.

나. 일화기록의 순환적 활용

참여교사들은 일화기록이 유아, 부모, 교육과정과의 단절에서 순환적으로 활용되기 위한 앞으로의 도전에 대해 일화기록의 정기적인 리뷰를 통해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유아발달을 이해하고,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며,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할 수 있는 도전을 야기하였다.

(1) 유아발달 지원의 단절에서 순환으로

일화기록은 유아 발달을 이해하고 지원하는데 활용되어 한다. 일화기록을 하는 시간이 유아 개인에게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고, 유아의 행동을 더 의미 있게 바라보게 될 수 있었음을 김교사, 윤교사의 이야기에서 읽을 수 있었다.

그런데 한번쯤은... 일화기록을 함으로써 이 아이를 단 10분이라도 개별 유아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화기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평소에는 솔직히 아이들만 딱 보고

있지는 않잖아요... 부족한 수업준비 등등(웃으며) 그런데 무슨 소리가 들리거나 하면 쳐다보게 되죠. 그때 교사가 그 아이를 집중하게 되는데... 그래도 그나마 일화기록이 있으니깐, 아 오늘 이 아이는 이런 행동을 했구나... 하면서 5분, 10분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유아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5회차 포커스그룹인터뷰 중에서, 김교사 2013년 12월 27일)

관찰을 하고 일화기록을 남기는 과정은 꼭 필요하죠. 필요한 것을 알고는 있죠... 만약 A에 대해서 적는다면 그걸 통해서 내가 우리 반 아이들한테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일 수 있으니까... 하루는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미영이라는 친구가 치과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형을 놓쳐놓고 '아 별려봐' '물 행구자' 말을 하면서 인형의 이를 뽑고 있었어요. 저는 미영이가 어제 치과에 다녀온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미영이에게 물어봤거든요. 치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데 이만 뽑았다 하고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역할놀이를 하면서 치과에서 있었던 일을 그대로 흉내 내는 모습을 보게 되죠. 나중에 일화기록을 하면서 미영이의 이런 모습을 좀 더 의미 있게 보게 된 것 같아요.

(3회차 포커스그룹인터뷰 중에서, 윤교사, 2013년 12월 15일)

일화기록을 하는 시간에 대해 김교사는 바쁘게 돌아가는 하루 일과 속에서 단 5분, 10분이라도 개별 유아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라고 표현하였고, 윤교사도 우리반 아이들에게 관심과 애정을 갖게 되었다고 하면서 유아가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었던 일을 역할극을 통해 표현하고 그러한 모습을 의미 있게 바라본 것에 대한 뿌듯함을 느끼고 있었다. 유아는 아직 읽고 쓰는 능력을 숙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령이 높은 어른처럼 자신을 분명히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는 몸을 통하여 의사소통하고, 유아의 신체적 행동은 유아의 말만큼 많은 것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최교사는 일화기록을 하는 시간이 유아의 흥미를 파악하고 발달적 수준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를 통해 유아발달에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었던 경험을 이야기 하고 있다.

음... ○○이가 글자를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는 글을 하나도 몰랐는데... 5살 중에 글을 잘 아는 아이는 드무니깐... 그래서 개가 어떻게 해서 글을 알지? 하고 한참을 봤는데 언어영역에서 글자카드를 가지고 그림을 보고 그림을 떼다 붙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글자에 관심이 있나?’ 하고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날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그 아이를 불렀어요. 그 아이가 글자를 아는지, 모르는지에 대해 테스트를 해봤더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글자에 흥미를 붙이고 있구나.’해서 다음날에는 좀 더 수준 있는 글자교구를 제공할 수 있었어요. 만약 이러한 행동을 유심히 보지 않았다면... 기록하지 않았다면... ○○이의 언어발달이 지체되고 늦어지겠죠...

(최교사의 개인인터뷰, 2014년 1월 10일)

최교사는 관찰을 통해 유아의 언어 발달 수준을 발견하고,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그에 적합한 교구를 제공하고 있었다. 유아의 발달에 대해 기특해하면서도, 적기에 유아의 발달을 발견함으로써 오는 안도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영유아기는 발달의 속도가 매우 빠르고 가소성이 높은 시기이다.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인지, 사회, 정서적 발달에서 변화의 폭이 큰 유아의 진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사는 유아의 성장을 주시하여야 한다.

최교사의 이야기처럼 관찰을 통한 일화기록은 유아의 발달단계에 맞춘 적기교육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특정 영역에서 발달이 늦은 유아를 보조할 수 있다. 최근 발달이 늦거나 장애가 있는 유아를 담당하는 교육자들은 관찰을 평가도구로 사용하고 있고 장애 유아를 판별하고 진단하는데 있어서 놀이관찰은 검사보다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시간에 지남에

따라 특정 영역에서 적절한 진보가 부족한 유아들은 정기적으로 일화기록을 참고함으로써 확인된다(McFarland, 2008). 이는 교사의 주의 깊은 일화기록이 도움이나 치료가 필요한 유아를 일찍 판별하여 특별한 교육이나 전문가의 개입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2) 일화기록을 활용한 부모와의 의사소통 단절에서 순환으로

유아교육기관에서 부모와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의사소통은 필수적이다. 유아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유아에 대한 지도 방향을 정하고, 유아교육기관과 가정에서 최선의 방법으로 일관성 있게 교육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다음 엄교사의 이야기는 일화기록에 근거한 부모 상담을 통해 유아와 부모를 더 깊게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된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우리는 학부모상담지가 따로 있으니깐 학부모상담이 있는 전날이면 일화기록을 한번 검토는 하죠... 검토하면서 'A는 이런일이 있었네.'하고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고... 그리고 꼭 알려줘야 하는 내용들은 상담지에 주요단어만 딱 적어놓아요... 키워드만 봐도 어떤 일인지 알기 때문에... 왜 상담 시에 말문이 막힐 때, 기억이 안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가정과 모습이 다른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나도 가정에서의 아이의 모습을 이해하고, 학부모도 유치원에서는 이렇구나... 하면서 조금 더 아이를 이해하게 되는 시간이 되는 것 같고... 앞으로 어떤 지원을 해줘야 할지 계획도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4회차 포커스그룹인터뷰 중에서, 엄교사, 2013년 12월 20일)

엄교사는 부모 상담 전 일화기록을 검토하면서 부모에게 꼭 전달되어야 할 일들을 키워드로 메모를 남긴다고 한다. 이러한 과정은 유아들을 관찰한 내용이 유아교육 기관에서 보이는 유아의 행동에 대한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고 각 유아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엄교사의 이야기처럼 유아가 보이는 모습은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에서 차이를 나타내기도 한다. 부모 상담을 통해 교사와 학부모는 유아의 행동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앞으로의 발달적 과제에 대해 부모와 의논하고 효과적인 지도방안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때로는 가정에서와는 다른 자녀의 모습에 대해 놀람과 당혹스러움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갈등은 지속적인 일화기록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음을 박교사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볼 수 있었다.

(중략) 진짜 유별난 엄마들 같은 경우 그 아이에서 다르게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아이 자체도 집에서의 모습이랑 유치원에서 보이는 모습이 다른 모습이 많이 보이니까 엄마한테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처음에는 놀라면서 믿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그 아이를 몇일 동안 자세히 관찰하고, 불러서도 얘기를 해보고 하니 내가 믿었던 부분뿐만 아니라 한 10프로는 엄마가 말한 모습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실제로 관찰한 기록을 가지고 '이렇게 관찰을 하니깐 이렇더라...' 하고 이야기를 하니깐 엄마가 그 뒤부터는 조금씩 나와 유치원을 신뢰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무조건 집에서는 아니라고 하다가 교사가 아이의 모습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신뢰를 주면 진짜 관찰을 하고 우리아이를 이해하고 있나보다... 하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아의 행동을 나 혼자 교육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았어요... 부모님과 의논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2회차 포커스그룹인터뷰 중에서, 박교사, 2013년 12월 09일)

박교사는 가정에서와는 다른 자녀의 모습에 반신반의하는 학부모에게 지속적인 일화기록을 근거로 상담을 이어져 왔다. 이러한 과정은 교사와 학부모가 진정한 협력을 찾아가는 변화를 보이며, 까다로운 학부모와 신뢰하는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또한 유아의 행동에 대해 협의하는 과정은 교사 혼자서만 해결하려고 했던 ‘교사중심적인’ 자신의 모습을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한편, 의미 있는 상담을 위해서는 그들이 의논하고 싶어 하는 문제들을 부모 상담을 가지기 전에 먼저 물어보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고 한다.

나는 학부모와의 상담으로 내 자신이 조금 바뀐 것이... 학부모와의 상담 전에 우리 유치원에서는 부모상담 설문지가 나가요... 종이에 미리 상담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적어서 유치원에 보내는 가지고 오면 그것을 토대로 상담을 하죠... 그런데 한 어머니가 아이가 손톱을 뜯는다고 적어놓은 거예요. 이게 입으로 뜯는게 아니라 손으로... 사실...난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아무리 관찰하려고 해도 내 눈에는 잘 안 보이는데... 한번은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 개가 바르게 앉아있는 줄 알았는데 (손으로 숨겨서 뜯는 행동묘사를 하며)이렇게 안보이게 애가 옆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난 그저 바르게 앉아 있는 다고 생각했는데 ‘아차’ 싶어서 그날 한명 한명씩 봤는데 암전히 앉아있는 줄 알았던 많은 아이들이 사실은 꼬지락거리며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이 그제서야 눈에 보이게 되었던 경험이 있어요. (후략)

(1회차 포커스그룹인터뷰 중에서, 윤교사, 2013년 11월 16일)

윤교사는 학부모 면담 설문지를 통해 부모들이 더 알고 싶어 하는 영역에서 기록하는 것이 유아에 대해 새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전략은 교사와 부모 사이에 팀워크를 가지고 협력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Seplocha, 2004).

학부모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유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은 유아의 행동과 발달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다(Dombro & Dichtelmiller, 2000). 따라서 교사는 부모면담을 하기 전에 개별 유아의 모든 발달영역에 대해 일화기록을 하고, 그 기록물들을 효율적인 방식으로 정리 보관해 두어야 한다. 대화를 시작하는 방법으로 유아가 최근에 한 행동과 말이 적힌 일화를 사용하고(Seplocha, 2004),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유아 발달에 있어서 긍정적인 예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모는 유아가 어떻게 향상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와 유아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 교사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고, 교사는 유아의 앞으로의 발달과제에 대해 의논하는 '진정한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 일화기록을 통한 교육과정 재구성과의 단절에서 순환으로

어떠한 활동 및 환경을 새롭게 계획한다는 결정은 종종 어렵게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참여교사들의 이야기 속에는 각 유아발달의 이해를 통해 교육과정을 창의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나타나 있었다.

김교사 : 우리반에 있는 아이들은 진짜 생일이 진짜 반반으로 확 나뉘져 있는 것처럼... 2,3월에 확 몰려있다가 10월, 12월에 확 몰리고... 다 그런 건 아닌데 개월수에 따라서 발달수준도 진짜 큰 것 같아요!

윤교사 : 작년엔 우리반도 그랬어요, 모아지면 도.

김교사 : 그래서 활동을 할 때 그냥 평균적인 것을 하는 것 같은데... 쉽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너무 쉽게 느끼고... 아님 너무 뒤쳐져서 맨날 활동지가 쌓이는 아이들은 또 쌓이고...

(중략)

강교사 : 그럼 선생님반은 부담임교사가 있어요?

윤교사 : 네.

강교사 : 그럼 수준별 수업 하면 안되나? 우리도 초등학교처럼...

김교사 : 맞네맞네... 너무 차이가 난다 싶으면 부담임 선생님이 있으면 두 팀으로 나뉘도 되겠다.

윤교사 : 근데 잘하는 팀, 못하는 팀은 너무 하잖아요. 집에 가서 이야기 도 할 수 있고... 벌써부터 그렇게 나누는 것이 상처받을 수도 있고...

박교사 : 근데 미술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빨리 끝나는 아이들은 진짜 10분만에 다하고, 늦게 끝나는 아이들은 1시간 내도록 잡고 있으니깐... 물론 급해서 빨리 하는 애들도 있지만...

송교사 : 맞아요... 미술시간 특히 빨리 끝나는 애들은 기다리면서 책보는 시간이 훨씬 길잖아요.

윤교사 : 그럼 수준별로 딱 나누지 말고 교실 내에서 미술같이 먼저 끝나는 아이들은 부담임선생님이랑 다른 활동을 하면 되겠네요!

(5회차 포커스그룹인터뷰 중에서, 2013년 12월 27일)

일화기록을 하면서 특히 교실에서 각기 다른 발달 수준을 보이는 유아들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교사가 그동안 관찰하여 기록하였던 일화기록들이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한 결정을 위해 이상적인 것이다(McFarland, 2008). 참여교사들은 유아의 출생일에 따라 나타나는 발달적 수준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수준별 활동'을 제안하였지만 유아발달의 특성상 수준별 활동이 오는 부작용을 우려하여 '두개의 활동'이라는 창의적 적용을 고려하였다. 이는 일화기록이 개별 유아뿐만 아니라 학급 전체의 발달수준, 경험수준, 연령에 적합한 수준 등을 이해하게 하고 이에 기초한 교육과정을 재구성 할 수 있는 근거가 됨을 나타낸다.

또한 교육활동을 수행한 후 목표를 달성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데 일화기록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교사는 관찰을 통하여 자신의 수업을 평가해보고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활동을 제공하기 위하여 발달에 적합한 교육목표 및 경험을 계획하게 위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교사는 유아의 일화기록에 기초하여 각 유아의 발달과 특성에 적절한 개별화된 교육을 준비해야 하며, 교사-유아 간에 질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유아가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교육내용과 교수방법을 정해야 한다(이윤옥, 2009). 따라서 유아의 학습과 발달에 대한 풍부하고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일화기록을 문서화하고 매주 일화기록을 읽는 것은 모든 발달 영역에서 유아들의 전반적 발달수준을 파악할 수 있고, 수집된 일화기록에 기초하여 효과적인 활동과 경험을 계획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다. 제도적 지원을 통한 교사의 평가역량 강화와 근무환경 개선

사립유치원에서 일화기록의 기록과 활용이 교사와 유아에게 교육실천적인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일화기록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동기화하고 연구하는 교사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또한 사립유치원 현실의 껍박함에서 벗어나 원천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유아교육의 본질을 추구할 수 있는 일화기록이 되기를 기대한다.

(1) 교사의 수동성과 무지에서 연구·실천하는 교사로

형식적 서류로서의 기록, 유아교육기관의 요구에 따른 기록은 구체적인 계획과 체계적인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닌 강제성이 나타나는 기록의 결과였다. 하지만 인터뷰 곳곳에 묻어나는 체계적인 교사연수, 포커스그룹인터뷰의 경험은 교사의 수동성에서 연구하는 교사로의 도전을 야기하고 있었다.

먼저, 참여교사 중 2년차 교사부터 8년차 교사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하고 있는 일화기록에 관한 지식과 기술이 너무 부족하다고 느끼고 기록 및

평가를 하고 있어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일화기록을 시행하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체계적인 유아교사 연수를 요구하였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는 것이 연차가 쌓이면서 조금 노하우나 같이 겹쳐져야 하는데 점점 안 해지고 머리로만 기억하고... 일화기록을 보고 뭘 평가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진짜 그런 것이 우리도 연수 이런 것이 힘들긴 하지만 어느 정도 마음속에 10% 는 누가 가르쳐줬으면 좋겠다...이런 것이 연차가 많아도 항상 가지고 있는 생각인 것 같아요. 일화기록에 대한 연수가 있으면 좋죠. 하지만 그런 연수에서는 잘하는 예만 보여주니깐... 그럼 더 잘해야 된다는 강박관념도 더 생기는 것 같아요...(중략) 일화기록이 유아의 생활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분들을 편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윤교사의 개인인터뷰, 2014년 1월 18일)

윤교사는 일화기록의 자료를 해석하고 분석·종합하는 능력이 부족함을 인정하며 일화기록을 통한 유아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사 연수가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제기하면서, 교사연수를 하더라도 그 내용이 교사의 필요와 요구에 적합한 연수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 나아가 교육청 지원 자료를 통한 일화기록의 구체적인 평가방법의 장학 요구를 다음의 엄교사의 이야기를 통해 들을 수 있었다.

저는 아직 연차가 낮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직도 일화기록을 하면서 내가 사용하는 용어나 단어가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 때가 많아요...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객관적 기술인지도 궁금하고,, 어떤 단어가 적합한지 아닌지도 궁금하고... 이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실질적인 지도서가 있으면 좋겠죠. 그것도 연령별로 있다면 우리가 어떤 부분을 일화기록으로 남기고 어떻게 추론하고 해석하는지에 대해 알려주면 더 좋겠

쥬.

(엄교사의 개인인터뷰, 2014년 1월 14일)

한편, 참여교사들은 일화기록에 대한 포커스그룹인터뷰를 통해 일화기록에 대한 경험을 조명하고 교사로서의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다른 유치원선생님들이라 해봤자... 내 친구들이었고... 만나도 그런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고, 그냥 하소연 같은 것만 계속 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저는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니깐 다른 선생님들과 공유도 되고... 개인적으로는 나도 이렇게 좀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도 들었고 저도 연차가 좀 생기자 보니까 유치원에 이런 것이 좋겠다... 하고 제안 해 보고 싶은 마음도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유치원만 계속 있다 보니까 다른 유치원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했는데 이번 기회에 모여서 이야기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강교사의 개인인터뷰, 2014년 1월 16일)

송교사 : 아는 사람이랑 했던 것 보다는 모르는 사람이랑 하니깐 새로운 경험도 이야기를 듣고 가지고 있던 내 생각도 조금씩 바뀌는 것 같고...

연구자 : 생각이 어떤 식으로 바뀌는 것 같은가요?

송교사 : 그냥 그렇게 넘겼던 것도 '아 이런 것을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도 생각을 하는구나...'하고 느꼈고 그러면서 나도 조금 더 좋은 쪽의 생각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느낄 수도 있었어요... 또 좋은 점은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연구자 : 특별히 좋았던 점도 있으세요?

송교사 : 그 열심히 하시는 연차 낮은 선생님 있잖아요... 그 분을 보고 '아 이렇게도 하는구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하고 느꼈고... 난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정말 당연하게 느껴졌는데... 내

자신을 많이 되돌아 봤던 것 같아요...

(송교사의 개인인터뷰, 2014년 1월 13일)

박교사 : 처음 만난 사람들도 있고 하니깐... 내가 내 생각을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처음엔 먼저 들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같은 분야에서 일하다 보니깐... 공통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각 원의 특색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도 다르고, 일화기록 하면서 솔직히 제가 잊고 있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 볼 수 있는? 아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조금 들었고...

연구자 : 나름 자극제?

박교사 : 그렇죠... 자극도 되었던 것 같고, 그리고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세세한 것 까지는 일부러는 이야기를 또 안하는데...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박교사의 개인인터뷰, 2014년 1월 15일)

참여교사들은 일화기록에 대한 같은 경험을 공유하면서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자신이 하고 있는 일화기록을 되돌아보고 반성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며, 또한 긍정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창의적으로 적용해보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하기도 한다. 이는 포커스그룹인터뷰가 갖는 장점으로 유사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집단으로 구성하였을 때 상승효과를 가져오며 (Padgett, 1998), 관심 있는 주제와 관련된 사람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을 통하여 자신과 상대방의 지식을 공유하는 것은 다양하고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박귀선, 2009).

또한 앞선 참여교사들의 이야기처럼 포커스그룹인터뷰를 통해 발견한 다양한 방법들은 창의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배움을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상당한 차이를 낸다. 이에 대해 실행연구를 제안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실행연구란 인간의 행위 그리고 맥락 속에서 그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반성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이러한 행위를 이

해하고 실재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연구방법이다(Mac Naughton & Hughes, 2009). 포커스그룹인터뷰를 통해 알게 된 ‘새로운’ 이론이나 방안을 자신의 교육철학과 교육 실재라는 맥락 속에서 재구성하여 ‘지금 여기에’ 적합한 지식을 스스로 생성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2) 유치원 현실의 어려움에서 근무환경 개선으로

참여교사들은 사립 유치원에서 바쁜 하루 일과로 인한 일화기록에 대한 기록과 활용의 어려움을 이야기 하면서 원천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교사 대 유아의 비율 축소와 교사 1인당 해내야 하는 많은 업무의 경감을 이야기 하고 있었다.

교사 대 유아의 비율이... 18명에서 20명 정도가 되면... 그래도 좀 일화 기록을 작성하고 평가하는 것이 나올 것 같아요... 솔직히 3세때는 18명이었다가 갑자기 4세로 들어오면서 26명은 너무 버거운 것 같아요. 4세도 아직 어리고 교사의 손길이나 보살핌이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그리고 법적으로 제시한 비율도 지키지 않는 원이 많으니깐... 결국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장선생님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더 많은 수의 원아모집을 하는 것도 결국은... 이득을 취하려고 그런거니깐요.

(윤교사의 개인인터뷰, 2014년 1월 18일)

많은 업무를 줄이는 건 이제 와서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관에서는 서류를 늘리는 것은 쉽지만... 기존에 했던 것을 다시 줄이려고는 하지 않거든요. 그럼 차라리 교사의 수를 좀 더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부담임이 있거나 투담임제가 된다면 그만큼 많은 업무를 나눠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인력을 더 보충하면 원장님들은 더 많은 돈을 써야하는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박교사의 개인인터뷰, 2014년 1월 15일)

윤교사는 학급 당 교사 대 유아의 비율이 낮아진다면 좀 더 일화기록이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 박교사도 연령별 부담임이 아닌 각반에 부담임교사의 보충이나 투담임제도가 된다면 일화기록의 기록과 활용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두 이야기에서 나타난 것은 교사 대 유아의 비율을 줄이는 것, 교사를 충원하여 업무를 경감시키는 것 또한 유아교육기관 내의 기관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일화기록의 기록과 활용에 있어서 활성화를 위해서는 원장의 인식부터 바뀌어야 할 것이다.

한편, 유치원평가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그에 적합하고 현실적인 유아 평가항목을 제안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강교사 : 몇해 전부터 유치원평가를 하면서 서류는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김교사 : 해야 하는 유아평가 항목도 굉장히 많구요.

윤교사 : 그러니깐 그런 것을 부수적인 것을 없앤다고 하면 일화기록에 좀 더 충실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해야 할 것이 너무 많으니깐... 우리는 자유선택활동 평가도 해야 하고, 아이들 개인마다 1학기때 한번, 2학기때 한번 해야 하고...인성, 기본생활습관 체크리스트... 아이에 대해서 평가해야 할 항목들이 너무 많으니깐 모든 게 다 대충 대충이 되고...

박교사 : 그렇게 많은 평가항목들이 일화기록은 별개라는 생각이 드니깐 문제인 것 같아요.

강교사 : 맞아요. 우리가 자유선택활동평가, 기본생활습관 평가, 인성교육 평가 적는 것이 결국에는 아이들 관찰하면서 그것을 토대로 적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일화기록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관찰거리를 찾는듯한...

김교사 : 한 것을 또 하고 또 하는 듯한 느낌도 받아요...

윤교사 : 만약에 필요한 평가만 딱 정해주면 평가항목도 더 줄어들고 그림 일화기록에 좀 더 충실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시간도 줄어들고, 또한 교육청에서 유치원 평가할 때 유아평가에 대한 추가항목이 더 이상 늘지 않았으면 해요.

송교사 : 맞아요. 유치원에서는 안해도 될 것을 더 늘리고 있으니깐...

연구자 : 왜 더 늘린다고 생각하죠?

송교사 : 유치원 평가에서 잘 해야 하니깐... 1등 하려고 그러죠...

(5회차 포커스그룹인터뷰 중에서, 2013년 12월 27일)

참여교사들은 유치원평가 때 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늘어나는 현실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며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유아평가 항목만을 제시해주기를 제안하고 있었다. 유치원평가제는 유치원의 등급을 매기면서 유치원 사이의 과열현상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서류들은 이미 한 것을 중복해서 한다는 느낌을 들게 한다. 이것은 결국 모든 평가항목에 대해 충실하지 못하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유아평가를 우리 실정에 맞게 설계하여 교사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며 유아 발달 수준에 적합한 질적인 평가를 계획하고 실시할 필요가 있다.

VII.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일화기록의 경험을 통해 일화기록의 현실과 교사들이 앞으로 도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실천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포커스그룹인터뷰와 개인인터뷰를 통해서 유치원에서 무엇을 어떻게 일화기록하고 있으며, 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개선을 위해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연구자는 이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경험하는 일화기록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탐구하였다.

연구결과, 최교사를 포함한 일곱 명의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일화기록에 관한 이야기는 사립유치원 교사로서의 힘겨움과 갈등을 보여주었고, 유아교육기관 및 유아교육제도와 개인적 신념에서 비롯된 형식적인 기록과 활용으로 인해 일화기록이 유아와 교사에게 교육적인 의미로 다가가지 못하는 현실을 읽을 수 있었다. 사립유치원 교사들과 이야기를 처음 시작할 때 그들은 교사로서 자신의 경험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보였으나, 이야기가 진행되어 가면서 그들만의 고충과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 희망의 목소리를 읽을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수집한 일곱 명의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일화기록에 대한 이야기를 세 가지 측면, 즉 유아발달의 이해자원, 순환적 활용, 교사의 평가역량 강화 및 제도적 지원의 측면에서 다시 읽어보면서 실천적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유치원에서의 일화기록은 유아의 발달을 이해하는데 자원으로서는

가능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문제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기록하거나 특정 시간에 기록이 집중되는 현상, 그리고 외부평가를 대비해서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로서의 일화기록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참여교사들은 사립유치원에서 일화기록이 유아의 문제행동을 중심으로 시공간적으로 제한된 상황 하에 기록되고 있으며, 이는 실천과는 거리가 먼 형식적인 기록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기록은 유아발달을 이해하는 기록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현실로 나타났다. 참여교사들의 일화기록은 학급의 아이들 중 행동이 눈에 잘 띄는 아이들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유아교육현장에서 문제시되는 행동을 보이는 유아를 중심으로 관찰이 주로 이루어지며, 관찰한 내용의 기록횟수가 일정치 않아서 어떤 아동은 자주 잘 관찰되는 반면 눈에 띄지 않는 아동은 상대적으로 잘 관찰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나귀옥과 김경희(2012)의 보고와 맥을 같이한다. 참여자들은 특이하거나 평소와는 다른 행동, 문제행동을 하는 유아를 일화기록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으며, 교사가 무언가를 해결해줘야 한다는 인식으로 이어짐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나라 유아교육기관에서의 관찰과 평가가 주로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이루어진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나귀옥, 김경희, 2012; 이순자, 2004; 최일선, 홍용희, 2003)에서 볼 수 있듯이, 참여교사들은 일화기록이 주로 자유선택활동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단위활동시간에는 교사가 수업을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유아들이 스스로 활동하는 자유선택활동시간이나 점심시간에 관찰이 용이하다는 참여교사들의 표현에서 혼자서 많은 유아들의 보육과 교육을 책임지고 담당해야 하는 교사들의 어려움을 보여준다.

또한 참여교사들은 외부평가에 대비하여 증거확보를 위하여 일화기록을 하고 있었고, 자료를 모아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그저 형식적인 문서에 지

나지 않는 것을 작성하고 있었다. 외부평가 때문에 ‘급하게’ 작성하는 일화 기록은 유아의 발달과 진보의 근거로 활용할 수 없는 현실을 드러낸다. 유치원에서 관찰을 하더라도 진정으로 아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외부평가를 위한, 평가준비를 위한 관찰인 경우가 더 많다는 김남희(2010)의 지적을 본 연구의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실을 마주하며 참여교사들은 일화기록이 유아발달의 이해자료로 기록되기 위한 도전으로 유아의 모든 발달영역에서, 일상생활과 다양한 공간에서, 실천적 자료로서 기록하길 제안하였고, 이는 일화기록을 계획성 있게 기록하는 것을 시사한다. 정기적으로 각 아이들에 대해 어떤 분야가 관찰되는지를 기록하고, 그런 다음 적게 기록된 영역에서 더 많은 정보 수집에 집중하는 해야 한다는 McFarland(2008)의 의견과 같이 계획성 있는 일화기록은 유아의 모든 발달영역을 일상생활의 자연스러운 맥락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일화기록 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다. 참여교사들은 ‘일화기록을 할 것이 없어요’ 하고 말하다가도, 모든 영역에서 관찰될 수 있는 유아의 행동을 나열해보았을 때는 놀라움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사실 유아의 모든 행동은 영역간의 상호작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행동도 신체적 영역에만 인지적 영역에만 국한될 수는 없다.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 교사는 모든 발달영역을 동등하게 관찰해야 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에서, 유아의 성장, 발달 혹은 성취를 자연스러운 맥락에서 기록되어야 한다. 또한 실천적 자료의 근거로서 일화기록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단 몇 분의 시간일지라도 매주 시간을 내어 지난주의 기록들을 검토하는 것은 모든 유아들이 관찰되어지고 모든 발달영역들이 평가되어지는지를 알아볼 수 있고(McFarland, 2008), 유아의 발달을 이해하고 추적하여 그에 적절한 지원 및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실천적 자료가 될 수 있다.

둘째, 유치원에서의 일화기록은 순환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화기록을 일정한 기준과 시기에 따라 요약하고 분석하지 않음으로써 유아 발달을 이해하거나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지 못하는 현상, 그리고 일화기록에 근거하여 부모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고 단절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일화기록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참여교사들은 사립유치원에서 일화기록이 일정한 시기와 분석기준을 정해 놓고 정기적으로 그 자료를 요약, 정리하며, 분석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아발달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일화기록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 하였다. 유아평가 시 관찰결과를 적절히 분석하는 일은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연구결과(이성희, 2003; 이순자, 2004; 최미숙 등, 2009; Nah & Kwak, 2011)에서 볼 수 있듯이, 참여교사들은 반복적인 행동을 보이는 유아행동을 추론하고 평가하지 않음으로써 유아의 발달단계와 심리상태를 이해하지 못하고, 유아 행동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이 없는 일방적인 훈육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유아의 종합 평가 자료로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유치원 법정 자료인 생활기록부 작성 시 누적된 일화기록의 자료 보다는 아이에 대해 생각나는 이미지나 일명 지침서를 참고하여 유아발달을 적당한 문구에 꿰어 맞추고 있었다. 생활기록부 작성 시 교사의 관찰이나 기억에 의존하여 하고 있다는 차선례(1997)의 지적을 본 연구의 참여교사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참여교사들은 부모상담 시 당일에 보여준 유아의 모습이나 기억에 의존하여 부모와 의사소통하고 있었다. ‘일화기록... 상담할 때 제일 많이 활용되죠... 근데 막상 상담할 때에는 당일 있었던 일을 더 관찰하죠’ (4회차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는 김교사의 이야기처럼 유아평가의 결과를 부모와의 면담 시 가장 잘 활용한다(방충남, 1999)고 하지만 부모상담일이 되면 기록이 아닌 당일에 보여준 유아의 행동만을 기억하여 이야기 한다는

모순을 보여준다. 참여교사들은 유아교육기관이나 유치원평가에 맞춰서 형식적으로 급하게 한 일화기록이 그 정확성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활용하지 않았고 이는 곧 일화기록이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위한 근거자료가 될 수 없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참여교사들은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참고하여 교육과정을 계획 및 재구성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과정은 개별유아의 능력, 요구, 흥미를 고려하지 않고 기존의 교육과정을 답습하고 있었다. 이전 교육과정을 평가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교육과정의 밑거름이 될 수 없었다. 유아의 흥미와 발달의 증거가 되는 누적된 일화기록을 다음 학년으로 진급했을 때 다시 살펴보지 않았고, 전달되더라도 구두로 전달되고 있는 현실에서 일화기록을 통해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일화기록에 대한 활용은 변화가 필요하다. 유아의 발달수준, 강점 및 요구를 파악하여 그에 근거한 적절한 활동을 계획하고, 학습과 발달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으로써 학습 자료와 학습 방법, 특정 활동에 대한 시간할애, 흥미영역의 재배치 등 교육활동의 수정에 활용하여야 하며, 유아평가 결과를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활용하여야 한다는 보고(McAfee & Leong, 2007)와 같이 참여교사들은 일화기록 자원을 통하여 유아발달의 지원, 부모와의 의사소통, 교육과정 재구성이 순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일화기록을 함으로써 이 아이를 단 10분이라도 개별 유아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것 같아요(5회차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김교사의 말처럼 바쁜 현실에서 개별유아에게 관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은 유아의 흥미와 발달적 수준을 이해하여 그에 적절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시간에 지남에 따라 특정 영역에서 적절한 진보가 부족한 유아들은 정기적으로 일화기록을 참고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는 McFarland(2008)의 의견처럼 도움이나 치료가 필요한 유아를 일찍 관별하여 특별한 교육이나 전문가의 개입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유아의 발달과 진보에 대한 부모와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의사소통은 필수적이다. 학부모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유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은 유아의 행동과 발달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다 (Dombro & Dichtelmiller, 2000). 지속적인 일화기록을 근거로 하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부모는 유아가 어떻게 향상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와 유아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 교사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고, 교사는 유아의 앞으로의 발달과제에 대해 의논하는 ‘진정한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과정 재구성 측면에서 보면, 강혜정(1998)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관찰하고 기록된 자료들은 유아의 개인적 평가 및 교육과정의 계획, 평가를 동시에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교실에서 각기 다른 발달 수준을 보이는 유아들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교사가 그동안 관찰하여 기록하였던 일화기록들이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한 결정을 위해 이상적인 것이다(McFarland, 2008). 이러한 선행연구의 주장은 일화기록을 통해 교육과정을 그들의 환경과 실정에 따라 창의적으로 적용하고, 재구성하고자 하는 참여교사들의 도전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셋째, 유치원에서 일화기록의 기록과 활용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의 평가역량 강화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일화기록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유아교육기관의 분위기에 따라 수동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현상, 그리고 사립유치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유아에 대한 평가가 기록되지 않고 구두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김윤경, 2001; 이순자, 2004)에서 볼 수 있듯이, 참여교사들은

유아의 의미 있는 행동을 전달한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기록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았다. 이것은 유아교육기관의 강압성과 관련이 높았으며, 일화기록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기록으로 남기는 횟수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각 기관마다 사용되는 일화기록의 양식이 다르고, 기관을 옮겼을 때 다시 새로운 양식과 기관의 요구에 따라 평가를 해야 하는 점, 유아교육현장에서 단 한 번도 일화기록에 대한 연수나 피드백이 없었던 현실은 교사를 수동적인 평가자로 나아가게 하고 있었다.

‘오늘을 되돌아보는 시간 보다는 내일을 준비하기에 급급하죠...’(개인 인터뷰)라는 윤교사의 이야기를 통해 과도한 업무로 인해 시간이 부족해서 일화기록을 실시하는 일이 현장에서 쉬운 일이 아님을 읽을 수 있었다. 이는 유아평가 실행 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교사의 과도한 업무로 인한 시간 부족을 주장한 연구결과(김지연, 2007; 서은주, 홍순옥, 2009; 손희경, 2011; 유종수, 2001)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참여교사들은 교실의 많은 유아 수로 인하여 지속적인 관찰의 어려움을 이야기 하였다. 이는 유아평가 실행 시 높은 교사 대 유아 비율로 인한 어려움을 보고하였던 선행연구(김영선, 2006; 김윤경, 2001; 손미경, 1999; 엄기자, 2000)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마주하며 참여교사들은 일화기록의 기록과 활용이 실천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사의 평가역량 강화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요구하였다. 사립유치원의 질적 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유아평가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교사의 일화기록을 통한 적절한 평가는 유아 학습의 진행 상황, 자신의 교육계획 의도, 교육 실천의 효과를 확신하게 하므로 일화기록의 평가방법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바람직한 유아평가의 실천을 위해서는 유아교사가 교육학적 내용지식(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즉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의 대상인 유아에 대한 전문지식을 모두 축적해야 한다는 Chen과 McNameee(2007)의 의견과 같이 참여교사들은 일화기록의 실시요령에 대한 안내와 교육청 지도서와 같은 전문적인 서적의 보급을 통해 일화기록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으며, 효과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바람을 읽을 수 있었다. 또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거나 과도한 업무의 양을 줄여 유아발달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시간과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해 줘야 한다는 서은주와 홍순옥(2009)의 주장처럼 참여교사들은 교사 1인당 해내야 하는 많은 업무의 경감과 원천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높은 교사 대 유아의 비율을 축소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리고 관행처럼 내려온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유아교육기관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지원과 개선은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일화기록을 함께 있어서 현실적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교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해석한 본 연구 작업이 사립유치원에서 일화기록을 실행하는데 어려움을 이해하고 나아가 교사와 유아에게 교육실천적인 일화기록의 실현을 바라는 의미 있는 목소리로 전달되기를 바란다.

한편, 일화기록에 대한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이야기에 나타난 교사로서의 삶에 영향을 준 개인의 경험은 현직교사교육과정에 대해서도 시사점을 준다. 현직 유치원교사들을 위한 연수과정에서 유아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나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이 주를 이루는 한편, 유아평가의 도구로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일화기록에 대한 집중적인 연수나 교사로서의 반성적 성찰의 필요성과 기회를 갖도록 하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외부로부터 강요받는 지식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잘 가르치는 교사’가 되기 앞서서, 교사 스스로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의 목소리로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방법인 포커스그룹 인터뷰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한 여러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를 반성

하고 새로운 방법을 창의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교사들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었다. 앞으로 유아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주제를 통해 유치원교사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유아교육 현장의 모습을 직시할 수 있는 관점을 키울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와 관련해서 후속연구의 방향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교사의 포커스그룹인터뷰와 개인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질적 분석 하였다. 후속적으로는 현장의 보다 풍부한 경험을 수집하고 그 의미를 탐구하기 위해 유치원 참여관찰을 포함하는 방법론적 보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교사의 자기연구(self-study)나 실행연구(action research)를 적용해 봄으로써 일화기록의 개선을 실천하는 연구 노력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 본 연구는 사립유치원 교사들을 대상으로 일화기록의 현실과 도전과제를 탐구하였다. 후속적으로는 공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 같이 다양한 유아교육기관의 맥락에서 나타나는 일화기록으로 확장해 봄으로써 유아교육 현장에서의 일화기록이 갖는 의미를 보다 심도 있게 탐구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숙현(2001). 관찰과 기록화를 통한 유아평가. 서울: 교육과학사.
- 강숙현, 최미숙(1995). 발달에 적합한 유아교육의 실제. 전남대학교 출판부.
- 강혜정(1998). 레지오 접근법에서의 기록 효과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교육과학기술부(2009). 유치원 지도서1, 총론.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2012). 5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침서. 서울: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2013).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해설서. 서울: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 교육부(1995). 유아교육과정에 기초한 유아관찰척도.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부(2000). 유치원 교육 활동 지도 자료1, 총론.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김경철(1997). 유아교육 평가의 새로운 대안: 포트폴리오. 열린유아교육연구, 2(2), 109-122.
- 김남희(2010). 유아교육평가의 구조적 문제 진단 및 방향 모색을 위한 탐색연구, 9(4), 135-163.
- 김영선(2006). 유치원의 유아평가 실태와 개선방안연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천(2004). (교과교육과 수업에서의) 질적 연구. 서울: 문음사.
- 김영천, 이용숙(1998). 교육에서의 질적 연구: 방법과 적용. 서울: 교육과학사.
- 김윤경(2001). 유아평가에 대한 교사의 인식 및 실태.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연(2007). 유아발달평가에 대한 유치원 원장의 인식과 유아발달평가 실

- 태와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영(1994).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측정 및 평가도구의 활용실태와 교직원의 요구조사. 서울: 한국어린이육영회.
- 김지은, 김진숙(2006). 유아관찰 및 평가. 서울: 양서원.
- 김희연, 정선아, 오문자(2005). 기록작업을 매개로 한 부모참여에 관한 실험 연구: 학습공동체를 지향하며. 유아교육연구, 25(6), 221-255.
- 김혜선(2005). 첫 아버지됨의 체험. 아동학회지, 26(5), 73-87.
- 나귀옥, 김경희(2012). 누리과정 실행에 따른 유아평가의 방향 탐색. 한국유아교육학회, 32(4), 465-492.
- 박귀선(2009). 다문화교육의 개념에 대한 초등학교사의 인식: Focus Group Interview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미옥(2012). 유아평가의 실태와 교사의 인식과의 관계 연구. 가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미정(2000). 유치원 교사들의 유아평가에 대한 태도와 그 활용실태.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방춘남(1999).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비형식적 유아평가방법의 운영조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인숙(1995). 유아발달 평가활동의 실태분석.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은주, 홍순옥(2009).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유아평가에 대한 교사의 인식 및 실태. 아동교육, 18(3), 37-54.
- 성용구(2002).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에서의 다큐멘테이션(Documentation)의 교육적 가치. 초등교육연구논총, 18(2), 321-350.
- 손리라(2011). 유치원 교사의 유아평가 전문성에 대한 인식 및 실태.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미경(1999). 유아평가에 관한 교사의 인식 및 실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희경(2011). 유아교육기관에서 실시되는 유아평가에 대한 연구. 성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미영(2005). 보육시설에서의 영·유아 평가에 대한 교사의 인식 및 실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심윤희(2013). 포트폴리오 평가가 유아발달에 미치는 교육적 효과: 다중지능이론을 기초한 프로젝트 중심과정에서. 한국보육학회지, 13(3), 329-353.
- 안경숙, 김소향(2001). 유아 평가 방법의 새로운 대안 모색. 열린유아교육, 6(1), 89-105.
- 엄기자(2001). 유아평가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활용실태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원윤희(2011). 중환자실 간호사 간의 의사소통 경험에 대한 포커스 그룹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종수(2001). 유아교육 평가에 대한 교사의 인식 및 실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복희(2000). 유아교육에서의 포트폴리오 평가에 관한 연구. 논문집, 7, 257-271.
- 윤숙희(2013). 청소년미술치료사의 경험에 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경화(2001). 기록화를 통한 유아평가. 교육과정평가연구, 4(1), 41-54.
- 이기숙(2001). 유아교육과정. 서울: 교문사.
- 이상하(2011).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유아평가에 관한 교사의 인식 및 현황. 성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성숙, 김애화(2008). 포커스그룹인터뷰 방법을 통하여 살펴 본 학습장애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특수교육요구 아동연구, 20, 113-137.
- 이성희(2003).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유아평가 실시 현황 및 교사의 인식. 유아특수교육연구, 3(2), 129-142.
- 이성희, 사영숙(2004). 어린이집 교사의 유아 수행 평가에 대한 인식과 평가 현황.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1(3), 95-117.
- 이순자(2004). 유치원의 유아평가에 관한 사례연구. 유아교육연구, 24(5), 225-268.
- 이원미(2002).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유아발달평가 현황 및 교사의 인식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윤옥(2009). 영유아 행동관찰 연구. 서울: 신정.
- 이은혜(1995). 아동발달의 평가와 측정. 경기: 교문사.
- 이정환, 김지영(1996). 유아교육 기관에서의 비형식적 아동평가의 운영실태 조사. 서울: 한국어린이육영회.
- 이정환, 박은혜(1996). 교사들을 위한 유아관찰 워크북 II. 서울: 한국어린이육영회.
- 이진희, 윤은주(2012). 헤드스타트 국가보고체제 논쟁으로부터의 교훈: 바람직한 유아평가를 위한 시사점. 유아교육논집, 16(1), 115-133.
- 이혜경(1996). 아동관찰의 실제. 서울: 한국어린이육영회.
- 이혜원(2009). 교육적 통합에 대한 초등학교 일반교사의 인식: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방법을 통하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현옥, 김지영(1999). 유치원 교사들의 유아 포트폴리오 활용실태. 유아교육연구, 19(1), 151-168.
- 임재택(1995). 현대 유아교육과정. 서울: 양서원.
- 임희정(2012). 다문화가정 아버지의 자녀양육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 부경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금란(2009). 초등학교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학부모의 양육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종진(1999). 유아평가의 이해. 서울: 양서원
- 조윤경, 김경혜(2010). 잘 가르치기 위한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서울: 공동체.
- 차선례(1997). 유치원 생활기록부에 대한 교사의 인식 및 개선방안.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채선희(1997). 교육평가의 내재적 가치와 그 실현방안. *교육학 연구*, 35(4), 155-177.
- 최미숙, 박지영, 성연정, 윤유중(2009). 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유아교육평가에 대한 연구. *유아교육논집*, 13(1), 139-162.
- 최일선, 홍용희(2003). 한별유치원 만 5세 기린반 교사의 유아평가양상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유아교육연구*, 23(3), 171-196.
- 황해익(2002). 유아교육평가. 서울: 양서원.
- 황해익(2004). 아동연구방법. 서울: 정민사.
- 황해익(2010). 아동연구방법 (제2판). 서울: 정민사.
- 황해익, 송연숙, 정혜영(2008). 유아행동관찰법. 서울: 창지사.
- 황해익, 임재택(1996). 영유아 관찰 및 평가. 서울: 양서원.
- 홍혜경(1996). 유치원 수학활동과제를 활용한 평가의 적용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15(2), 173-191.
- Bogdan, R. & Biklen, S. K. (2010). 질적 연구방법론의 기초. (조정수 역). 서울: 경문사.
- Camden, C. (2001). *Classroom discourse: The language of teaching and learning* (2nd ed). Portsmouth, NH: Heinemann.
- Chen, J. Q., & McNamee, G. (2007). *Bridging: Assessment for*

- teaching and learning in early childhood classrooms*, preK-3. Thousand Oaks, CA: Corwin Press.
- Connelly, F. M., & Clandinin, D. J. (1990). Stories of experience and narrative inquiry. *Educational Researcher*, 19(5), 2-14.
- Dombro, A., Jablon, J., & Dichtelmiller, M. (2000). The power of observation: Building relationships with families. *Child Care. Information Exchange*, 135, 22-27.
- Goodwin, W. L., & Driscoll, L. A. (1980). *Handbook for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 Laura McFarland(2008). Anecdotal Records: Valuable Tools for Assessing Young Children's Development. *Southern early childhood association*, 36(1), 31-36.
- Leavitt. R. L. & Eheart B. K. (1991). Assessment in early childhood programs. *Young Children*, 46(5), 4-9.
- Mac Naughton, G., & Hughes, P. (2009). *Doing action research in early childhood studies: A step by step guide*. Maidenhead, Berkshire, England; New York: Open University Press.
- Marshall, C., & Rossman, G. B. (1989). *Designing qualitative research*. newbury Park, CA: Sage.
- McAfee, O., & Leong. D. J. (2007). *Assessing and guiding young children's development and learning* (4th ed). Boston: Allyn and Bacon.
- Morgan, D. (1997). *Focus groups as qualitative research* (2nd ed).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Series. Thousand Oaks, CA: SAGE.
- NAEYC(1992). *Reaching potentials: Appropriate curriculum and assessment for young children*. Washington, DC: NAEYC.

- Nah, K. O. & Kwak, J. I. (2011). Child assessment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ettings in South Korea. *Asian Social Science*, 7(6), 66-78.
- Padgett, A. G. (1998). *Cosmic Beginnings and Human Ends: Where Science and Religion Meet* edited by Clifford N. Matthews and Roy A. Varghese. 161(33). ZYGON.
- Salvia, J. & Yesseldyke, J. E. (1991). *Assessment*, Boston: Houghton.
- Seefeldt, C. (1990). *Assessing young children. Counting issu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311-300, Merrill publish company.
- Seplocha, H. (2004). Partnerships for learning: Conferencing with families. *Young Children*, 59(5), 96-99.
- Van Manen, M. (2000). 체험연구. (신경림 역). 서울: 현문사.
- Wiggins. G. (1996). Practicing what we preach in designing authentic assessment. *Educational Leadership*, 54(4), 18-15.

부 록

연구 참여 동의서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일화기록의 현실과 도전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지도교수 : 이 경 화

연구자 : 박 선 희

본 연구는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일화기록에 대한 경험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약 10주간 면담을 실시한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자료는 익명으로 기록될 것이고 본 연구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지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인 _____은(는) 본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면담을 하는 동안 연구자의 기기 사용에 동의하며, 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연구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연구 참여자 _____ (인)

2013년 _____ 월 _____ 일